2022 07
Vol. 185

문화+서울

Seoul Foundation
for Arts and Culture

서울문화재단

댑댄스 프로젝트, 김재현·김현수 <잼잼놀이터>(서울 스테이지11) |
즉흥공연 | 2022

이달의 아티스트

김호연

안무가

김호연은 국립현대무용단(2013~2016), 프랑스 콤파니 데르니에르 미니트Compagnie Dernière Minute 프로젝트 무용수, 영국 어카슈 오데라 컴퍼니Akash Odera Company 프로젝트 무용수 외 다수의 활동을 바탕으로 공동대표 임정하와 함께 단체 '댑댄스 프로젝트DAB DANCE PROJECT'를 창단해 활동하고 있다. 〈거룩한 태도〉 〈다시 만난 세계〉 〈최초의 풍요사회〉 등의 대표 작품은 자연을 향한 인간의 태도를 풍자하고 유희적인 해석과 몸짓을 통해 관객에게 끊임없는 질문을 건네며 소통을 도모한다는 평을 받아 국내외 다수 페스티벌에 초청됐다.

나는 "사회적 문제를 상상력을 통해 해결할 수 있다"는 철학자 맥신 그린Maxine Greene의 말에 적극적으로 동의한다. 상상은 우리가 타인과 세상을 이해하고 또 다른 관점으로 바라보며 공감하게 하기 때문이다. 상상은 우리를 공동체로 이끄는 힘이 있고 예술은 상상을 펼칠 수 있는 강력한 동력이기에 사회적 문제의 해결 방안으로 예술을 제시하는 맥신 그린의 철학은 무척 매력적이다. 예술이 명확한 길을 제시할 수는 없더라도 그가 말하는 '널리 깨어 있음'을 통해 문제의식을 드러내고 일깨울 수 있다고 생각한다.

나는 안무가로서 경험한 다양한 작업을 바탕으로 2016년 공동대표 임정하와 함께 단체 '댑댄스 프로젝트'를 창단해 '자연환경 오염과 인간'을 주제로 꾸준한 작업과 활동을 하고 있다. 기존의 경고성 메시지가 아닌, 예술을 통해 관객의 의식적 참여를 꾀하며 '스스로 깨어 있도록' 하는 매개 역할을 하고 싶다. 자연환경 오염에 어쩌면 대다수 인류는 무감각하고 정서적으로 무능해진 '마취 상태'에 있을지 모른다.

나는 동작을 통해 다양한 시각 매체를 넘나들며 이미지를 생산하고 융합하는 작업을 좋아한다. 본능적으로 인간의 공감 능력은 타인의 신체 활동을 관찰하고 이해하는 '거울뉴런계'에 뿌리를 두고 있다고 한다. 이러한 점에서 관객은 안무가의 움직임을 지각하고 자신의 행동처럼 수용하며 나아가 자신의 몸으로 감정적인 경험과 감상을 하게 된다.

그렇다면 나는 매체 간 경계를 넘나들며 이성적 영역의 신호와 정보를 감지하는 동시에 다양한 감각을 자극할 수 있는 요소를 찾고 싶다. 그래서 관객이 나의 작업을 자신의 몸으로 감상함과 동시에 다양한 감각으로 느낄 수 있기를 바란다. 더불어 앞서 언급했던 환경오염에 대한 인식의 '마취 상태'를 건드려줌으로써 사회적 상상력을 만들고 우리가 직면한 사회문제를 인식하도록 하여 모두에게 생명력을 불어넣고 싶다. 그리하여 '널리 깨어 있도록' 하고 싶다.

Contents

2022 07 Vol. 185

커버스토리 00 —— 01

이달의 아티스트 김호연

테마 토크

대학로에 부는 신바람

칼럼 06 —— 07

공연예술의 산실 대학로 한복판에 서울문화재단이 입지하는 의미

리포트 1 08 —— 09

대학로극장 쿼드·서울장애예술창작센터·

서울연극센터 개관을 앞두고

리포트 2 10 —— 13

대학로에 위치한 서울문화재단 4개 공간의 역할과 활동

스낵 14 —— 15

대학로에서 열리는 하반기 주요 문화예술축제

이슈+서울

이슈 1 16 —— 19

동화·그림책에 빠진 어른들

이슈 2 20 —— 23

서울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 러닝캠프Learning Camp

서울문화재단 [문화+서울]

발행처 (재)서울문화재단 **발행인** 이창기
편집 총괄 이규승 **기획·편집** 연재인, 오니트(주)(장보영, 장영수)
객원 편집위원 전민정 **사진** (재)서울문화재단 **디자인** 오니트(주)(장가은, 신제헌)
주소 서울시 동대문구 청계천로 517 **전화** 02-3290-7124 **팩스** 02-6008-7347
홈페이지 www.sfac.or.kr **웹진** www.sfac.or.kr/magazine
발행일 2022년 6월 30일 **등록일** 2005년 6월 8일

트렌드+서울

문화인 24 — 29

바이올리니스트 조진주

정연석의 서울 산책 30 — 33

서교예술실험센터

공감 1 34 — 35

뮤지컬 〈아이다〉와 〈마타하리〉

공감 2 36 — 37

책 《내 여자친구와 여자 친구들》과 《칵테일, 러브, 좀비》

서울 찰나 38 — 39

이야기+서울

김송희의 썰(說) 40 — 41

TV조선 〈우리 이혼했어요2〉와 TVING 〈결혼과 이혼 사이〉

최재훈의 씨니컬 42 — 43

Cine_Col: Cinema Column

이우정 감독의 <최선의 삶>

윤중강의 국악 실록 44 — 45

김소희와 박귀희

웹진 [비유] 46 — 47

시인의 소설

웹진 [연극in] 48 — 49

서울돈화문국악당 음악극 축제 <나무의 아이>

웹진 [춤:in] 50 — 51

넷플릭스 시리즈 〈러브, 데스+로봇〉의 '히바로' 에피소드를 중심으로

7월의 서울문화매뉴얼 52 — 58

편집후기 60

서울문화재단

(재)서울문화재단에서 발간하는 월간지 [문화+서울]은 서울에 숨어 있는 문화 욕구와 정보가 원활하게 소통할 수 있도록 예술가들의 창조적 힘과 시민들의 일상을 이어주는 다리가 되고자 합니다.

[문화+서울]에 실린 글과 사진은 (재)서울문화재단의 허락 없이 사용할 수 없으며, [문화+서울]에 실린 기사는 모두 필자 개인의 의견을 따른 것입니다.

대학로에 부는 신바람

서울문화재단의 신新대학로 시대

2021 대학로극장 쿼드 시범공연
<오버더떼창 : 문전본풀이>

공연예술의 산실에서
상업화와 재개발로 위기에 놓였다가
코로나19로 직격탄을 맞았던
대학로 현장에 서울문화재단이
자리를 잡았다.
서울문화재단 대학로센터에
위치한 대학로극장 쿼드와 예술청,
리모델링 중인 서울연극센터와
잠실에서 이사 온
서울장애예술창작센터가칭까지,
도보 5분 거리에 옹기종기 모여 있는
서울문화재단의 공간들이 하나가 되어
대학로에 불러일으킬 변화에
주목해 본다.

대학로 시대, 서울문화재단 2.0을 꿈꾸며

공연예술의 산실 대학로 한복판에 서울문화재단이 입지하는 의미

대학로 시대가 열렸다. 명확히는 '서울문화재단의 대학로 시대'다. 동숭아트센터를 리모델링해 재단 일부 팀이 이미 입주해 있고 예술청이 운영되고 있으며 극장 '쿼드'가 곧 개관할 예정이다. 여기에 서울장애예술창작센터가 대학로로 이주하고 서울연극센터가 새롭게 개관하면 바야흐로 '대학로 시대'가 열린다. 예술 활동이 가장 활발한 대학로 한복판에 서울문화재단의 입지는 어떤 의미일까?

1990년대부터 지금까지 대학로에 분 변화의 바람

필자는 줄곧 서울문화재단에 대학로 시대가 갖는 의미가 무엇인지 주문해 왔다. 서울문화재단이 예술 활동의 외곽이라 할 수 있는 용두동에서 대학로로 들어가는 만큼 서울의 예술, 그리고 대학로에 대한 재단의 입장이 있어야만 의미가 있지 않겠느냐는 주장이었다. 그러나 아직 그 입장은 보이지 않는다. 아마 긴 호흡 속에서 그 의미를 정리하고 있으리라. 그렇다면 과연 대학로에 터를 닦는 서울문화재단이 가져야 할 입장은 무엇일까?

익히 알다시피 대학로는 우리나라 최고의 공연예술 산실이다. 1990년대 초반부터 입지立地하기 시작한 공연장은 코로나19 시기를 통해 조금은 조정됐으나 여전히 135개의 공연장이 있음을 확인했다. 브로드웨이가 30여 개의 극장으로 구성되고 웨스트엔드가 20여 개의 극장으로 구성된 것을 고려하면 가히 엄청난 규모다. 세계적 수준의 공연 지역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러나 대학로가 곧 세계적이라고 말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무엇보다 아직 세계 수준에서 이야기할 만한 작품이나 레퍼토리가 나오지 않았다. 여전히 다수의 극장은 지하에 위치하고 공연 시설은 열악하며 공연자, 배우, 관객을 위한 시설은 취약하기 그지없다. 천만에 달하는 인구 규모와 많은 공연예술인이 마땅히 자리 잡기 어려운 현실이다. 그나마 대학로에 있어야만 공연예술인에게 기회가 열릴 수 있는 여러 여건에서 대학로는 수많은 관객, 배우, 스태프들이 어울리는 공연 공간이 됐다.

대나무는 매 시기 마디를 형성하며 성장한다. 대학로도 마찬가지다. 1990년대 초반 입지하기 시작한 공연장은 배우들이 지하의 좁은 공간에서 열정에 찬 작품 활동으로 다양한 관객을 만나며 새로운 형태의 연극을 실험하던 장이었다. 시간이 지나고 입소문이 나며 하나둘 극장이 늘었고, 2000년대 초반 상업적 노출 공연과 개그 극장이 들어서며 첫 번째 위기에 봉착했다.

대학로 시대의 진정한 의미

이때 문화지구로 지정됐다. 늘어나는 공연장, 위기를 만난 연극, 넘쳐나는 노점상 등으로 어떻게 하면 '연극의 거리'를 지킬지가 과제였고, 변화의 속도를 조금은 늦춰 대응할 시간을 갖자는 것이 문화지구 제도의 취지였다. 그러나 한번 방향을 잡은 변화의 속도는 점점 더 빨라졌다. 문화지구 지정과 더불어 대학로가 '공연'이라는 상업적 코드로 아이콘화되며 더 큰 자본과 상업적 업소가 자리를 차지했고, 2000년대 후반부터 2010년대까지 대형 자본에 의한 건축 행위로 대형 공연장과 다관 공연장이 들어섰다. 본격적 상업화의 시대가 닥쳐왔다. 이제 막을 힘은 어디에도 없다. 다수의 공연자는 지역을 떠나 혜화문 주위로 몰려들고 한성대 주변까지 영역을 넓히게 된다.

대학로는 이처럼 세 마디로 성장해 왔다. 처음 공연장이 입지하던 시기부터 연극이 활발하게 공연될 때까지, 이어 상업적 공연과 호객 행위가 이뤄지며 문화지구로 지정될 때까지, 이후 대형 자본이 유입되며 다양한 건축 행위와 대형화·다관화된 공연장으로 바뀌어 현재의 모습을 드러낼 때까지. 이렇게 세 단계로 정리된다. 그렇다면 지금 이 대학로에서 서울문화재단은 어떠한 모습을 보여야 할까? 어떻게 해야 대학로 시대의 진정한 의미를 보여줄 수 있을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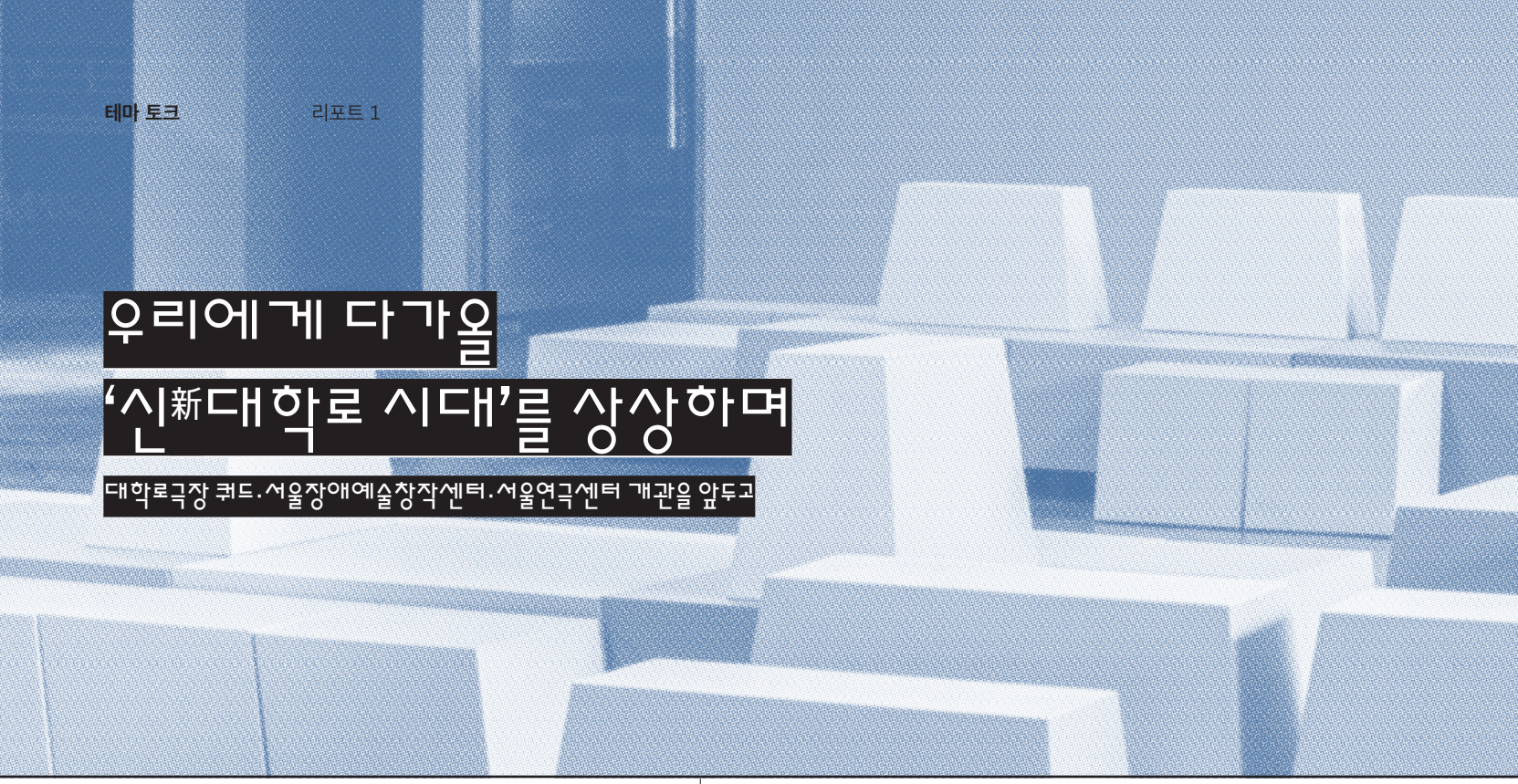
서울의 예술 신scene을 만들어가는 주체

바람은 방향을 정하는 역할을 한다. 대학로에 현재 부는 바람, 예컨대 좋아진 건축물, 편의성과 안정성을 갖춘 공연장, 이제 팬덤을 유발하는 레퍼토리 공연까지 대학로에는 많은 변화가 있다. 그리고 그것은 늘 신호를 보낸다. 그 신호에 어떻게 답할 것인가?

대학로의 진정한 의미는 대학로에만 있지 않다. 예술계의 현장, 즉 예술인이 작품을 만들고 관객을 만나며 다양한 커뮤니티 활동을 하고 새로운 만남을 가지며 기회를 꿈꾸는 모든 자리에 대학로의 진정한 의미가 있다. 그런 만큼 서울문화재단의 대학로 입지가 갖는 의미는 현장으로 다가감, 혹은 현장에 '자리 잡음'에 있다. 그것은 단지 지원자가 아니라 서울의 예술을 함께 만들어가야 할 주체로서 서울문화재단이 있음을 의미한다. 재단의 입장에서 보면 '서울문화재단 2.0'이랄까? 이제는 현장에서 재단을 만들어가는 새로운 노력이 필요하다. 과거의 재단이 지원자로서 역할에 충실했다면, 앞으로의 재단은 예술가와 더불어 서울의 예술 신scene을 만들어가는 주체로서 현장의 바람, 변화에 맞춰 스스로 혁신하는 기관으로 거듭나야 한다. 그래야만 대학로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며 자신을 유연하게 만들어가는 조직이 될 것이다.

단지 대학로만이 아니다. 홍대·성수동·문래동·을지로 등 많은 지역이 예술로 거듭나며 서울의 예술 신scene을 만들어내고 있다. 그 신에 어떻게 답할지, 그 대답이 서울문화재단 2.0이다. 앞으로 대학로를 비롯한 수많은 예술 현장은 다양한 말을 걸며 자신의 아픔과 꿈, 변화의 방향을 이야기할 것이다. 그 말에 어떻게 대응할지, 현장으로 분화하며 변화·발전하는 대학로 시대와 서울문화재단 2.0을 기대해 본다.

글 라도삼_서울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우리에게 다가올 '신新대학로 시대'를 상상하며

대학로극장 쿼드·서울장애예술창작센터·서울연극센터 개관을 앞두고

서울문화재단은 2004년 열악했던 남산 시절을 지나 2005년 청계천이 복원, 대중에게 공개되는 때를 맞춰 청사를 이전했다. 그 후로 10년이 지난 2015년에는 '대학로 시대'라는 숙제를 눈앞에 뒀다. 재단의 기본 재산을 부동산으로 전환해 대학로에 공유 플랫폼을 조성하는 일은 "재단의 '경영 자산'을 모두의 '공유자원'으로 전환한다"는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대학로는 세계적으로도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문화 집적지이나 현재는 과도한 상업화와 젠트리피케이션gentrification의 위기에 놓여 있다. 이러한 시점에서 지금, 서울문화재단의 행보는 대학로에 다시 문화예술의 숨결을 불어넣겠다는 의지의 표명인 셈이다.

대학로에 탄생하는 새로운 문화 플랫폼

서울문화재단은 오랫동안 문화예술의 허브 역할을 해온 동숭아트센터를 매입한 후 서울문화재단 '대학로센터'로 리모델링을 마쳤으며, 혜화역 4번 출구에 위치한 '서울연극센터'의 리모델링에 착수했다. 또한 장애예술 중심의 창작공간인 잠실창작스튜디오까지 '서울장애예술창작센터가칭'라는 새로운 이름으로 대학로에 옮겨온다.

그중 가장 중심에 선 '대학로센터'를 살펴보자. 이곳은 과거 동숭아트센터가 있던 자리인 만큼 그 문화적 의미를 되살려 미래의 대학로에 요구되는 다양한 기능을 담는 문화 플랫폼으로 거듭났다. 7월에는 창작 중심의 1차 제작·유통 극장인 '대학로극장 쿼드'가 문을 연다.

누구에게나 열린 문화예술 창작 발표 플랫폼인 '서울장애예술창작센터가칭'도 올해 10월 대학로에서 문을 연다. 장애 예술인과 비장애 예술인이 교류하는 공간으로 장애예술의 새로운 지평을 열 것이다.

또한 오는 11월에는 기존 서울연극센터가 증축과 리모델링을 거쳐 예술가의 요구를 담은 공간으로 재개관한다. 이 모든 공간은 각기 임무를 수행하면서도 서로 연결돼 '신新대학로 시대'를 열어갈 것이다. 다가올 새로운 플랫폼의 탄생 이후 펼쳐질 변화를 가상 인물 시민 'S씨'와 예술가 'K작가'의 하루를 통해 상상도想像圖로 그려봤다.

2023년 10월 21일 토요일, 날씨 맑음. 대학로를 찾은 시민 S씨:

오늘은 오랜만에 친구 P와 대학로에서 다양한 문화행사를 참관하고 체험한 뒤 늦은 저녁에는 공연을 보기로 했다. 먼저 대학로와 관련된 다양한 정보를 얻을 요량으로 서울연극센터 1층에 들렀다. 조금 이른 오전 11시에 왔다면 품격 있는 무료 공연 <서울 스테이지11>을 감상할 수 있었을 텐데. 다음 기회를 위해 차후 일정을 메모했다. 친구 P는 장애·비장애 공존 가치 실현을 목표로 건립된 서울장애예술창작센터를 먼저 방

문하자고 했다. 마침 장애 예술인 오픈스튜디오 주간이라 센터에서 다양한 작가의 작품을 감상할 수 있었다. 장애·비장애를 넘어 예술이라는 매개를 통해 동시대의 미학을 살펴볼 수 있는 좋은 시간이었다. 인근에 자리한 서울문화재단 대학로센터로 접어들었다. 그곳에서는 여러 예술가가 직접 작품을 들고 나와 판매 내지 물물교환을 하고 있었다. 또한 옆에는 쇼케이스 공연을 볼 수 있는 예술장터가 열리고 있었다. 장터 안쪽으로 이동하자 국내 최초의 'NFT 예술카페'에서 다양한 작가의 작품을 전시하고 있었다. 카페에서 커피 구매로 작품의 지분을 소유해 작가와 인연을 맺을 수 있다는 것이 신기했다. 오늘의 마지막 일정은 대학로센터 지하에 있는 '대학로극장 쿼드'에서 서울국제공연예술제 하이라이트 작품을 보는 것이다. 대학로극장 쿼드는 자체 제작극장이기도 하지만 일부 기간에는 우수한 국내외 공연을 소개하기도 하고, 단체와 협력해 일반 예술가에게 극장을 대관해 주기도 한다. 극장 인포메이션 부스에서 쿼드 회원 가입을 하고 30% 저렴한 티켓을 구입했다. 늦은 밤, 공연이 끝나고 거리로 나오자 여러 거리예술가가 모여 다양한 공연을 펼치고 있었다. 다음 주에는 거리공연은 물론 대학로의 여러 단체와 서울문화재단이 공동 주최하는 대학로거리예술축제도 반드시 참관해야겠다고 마음먹고 지하철을 타고 집으로 향했다.

2023년 10월 28일 토요일, 날씨 맑음. 대학로를 찾은 K작가:

나는 미디어아트 작업과 페인팅 예술을 하고 있다. 오늘은 희곡 작업을 하는 동료 작가 S와 만나 대학로에서 여러 가지 일을 처리하고 서울문화재단에서 운영하는 '서울형 예술가 재교육 강좌'를 들을 예정이다. S와 만나기로 한 서울연극센터로 향했다. 그곳에서 친구는 연극 전문 라이브러리에서 희곡집을 조사하고 있었다. 친구는 나중에 3층 화이트박스에서 시범 공연을 올릴 예정이니 그때 꼭 초대하겠다고 했다. 우리는 옥상 카페에서 서울문화재단 예술가 회원으로 가입하고 차를 마시는 여유를 가진 후, 길 건너 서울문화재단 대학로센터로 이동했다. 이곳에서는 매주 토요일 예술 관련 전문 변호사를 통한 무료 법률 상담이 진행된다. 오늘 나는 일전에 기업과 협업하며 빚어진 저작권 문제를 상담할 예정이다. 2층 예술인통합상담지원센터에서는 이러한 무료 법률 상담 이외에도 예술가 일자리, 교육 등 다양한 정보를 교류할 수 있는 장이 상설 운영되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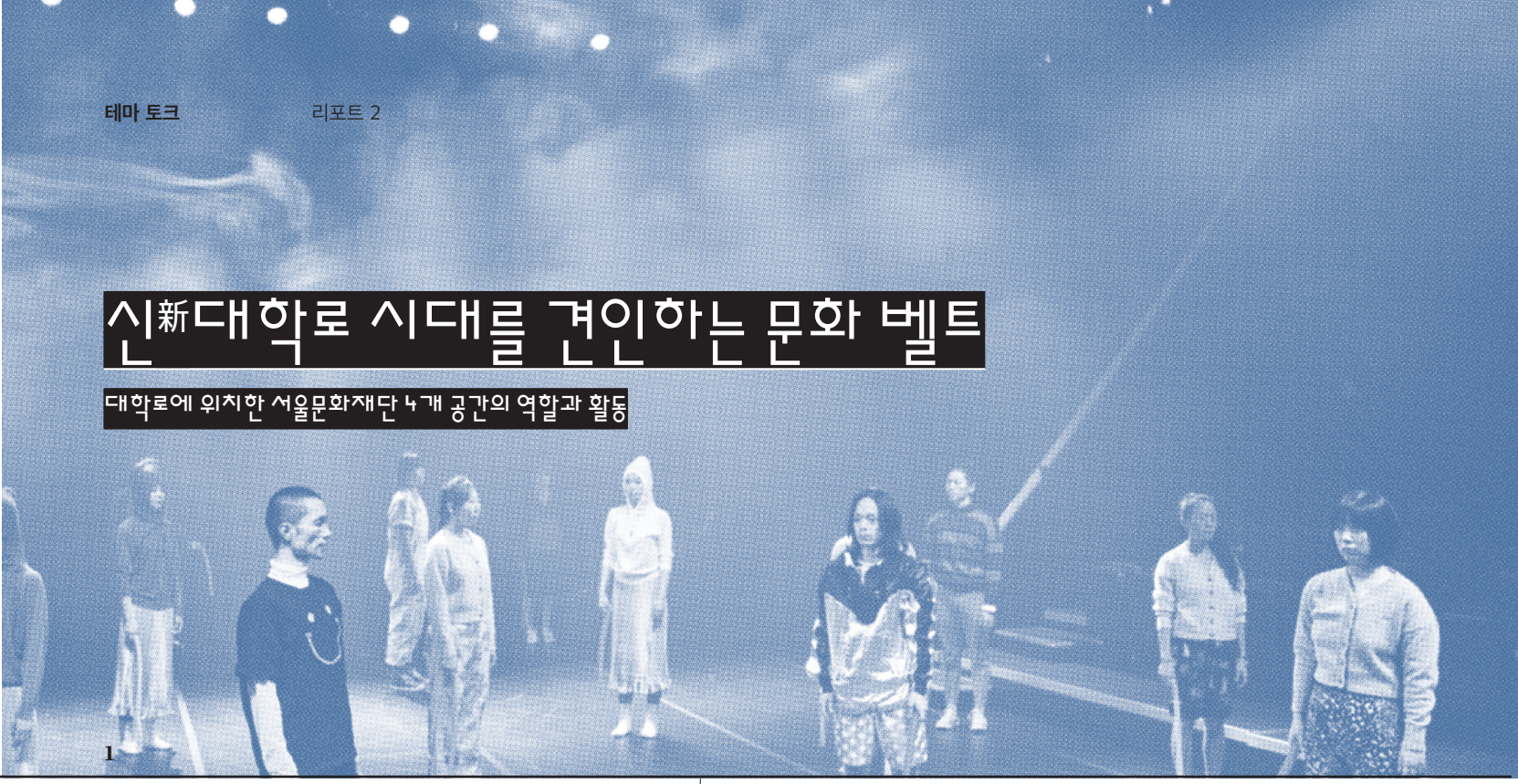
있다. 친구는 서울문화재단 통합예술지원 키오스크를 통해 다양한 지원사업을 조사하고 난 후 올해 가을에 있을 공연을 위한 리딩 연습을 위해 연습실 대관 신청을 했다. 나도 1층에 있는 NFT 예술카페에 나의 작업물을 올릴 수 있는지 문의했다. 다음 주에 대학로센터 마당에서 열릴 예술장터 참가 신청서도 작성했다. 페인팅 작품 3~4점을 가지고 나와 판매하거나 다른 작가의 작품과 교환할 생각이다. 앞으로 이곳 대학로에서 열리는 다양한 축제에 참가하거나 공동 작업을 할 예술가와 자연스럽게 어울리면서 새로운 작업을 기대해 봐야겠다. 내가 바라는 것은 축제 기간에 나의 미디어아트 작품을 많은 사람이 관람하는 것이다. 이런, 바쁘게 움직이다가 '서울형 예술가 재교육 강좌'를 놓칠 뻔했다. 5층 교육장으로 가는 중 다양한 예술가를 위한 '학술대회' '쇼케이스' '세미나' '아카데미' 포스터를 보며 모든 일정을 체크했다. 하고 싶은 것은 많지만 다 소화할 수 없으니 신중하게 골라야겠다. 예술가 참여 프로그램이 정말 많아 나중에 차분하게 공부해야겠다고 마음먹었다.

상상하며 적어본 이야기이지만 향후 새롭게 문을 여는 대학로의 문화공간은 독립된 기능과 역할을 넘어 각 공간이 갖는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파워를 교차해 하나의 강력한 대학로 문화 벨트로서 기능할 것이다. 누구나 대학로를 찾을 때 예술가를 만나고 그들의 프로젝트와 작품을 상시적으로 조우할 수 있도록 오픈형 공간을 조성할 것이다. 나아가 대학로 생태계와 연동하는 다양한 프로젝트를 운영할 것이다. 이로써 대학로에 문화예술의 활력을 지속적으로 공급하는 시스템을 구축할 것이다. 이것이 서울문화재단이 꿈꾸는 '신新대학로 시대'이다.

글 김영호_서울문화재단 극장운영단장 | **사진** 서울문화재단

신新대학로 시대를 견인하는 문화 벨트

대학로에 위치한 서울문화재단 4개 공간의 역할과 활동



1

서울문화재단의 '신新대학로 시대'가 개막을 앞두고 있다. 대학로 일대의 상업화와 젠트리피케이션 등으로 대학로 고유의 정체성이 흔들리던 가운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2020년 초 도래한 코로나19 팬데믹은 우리나라 문화예술의 미래를 불투명하게 했고, 시민들은 평소 일상 가까이에서 누리던 문화예술의 빈자리를 경험해야 했다. 이러한 흐름 가운데 서울문화재단이 기획하는 '신新대학로 시대'가 시사하는 의미는 작지 않다. 대학로극장 쿼드QUAD, 서울장애예술창작센터, 서울연극센터 등 올해 새로 개관하는 공간과 지난해부터 운영해 온 예술청까지 총 4개 공간의 역할과 주요 활동을 살펴보자.

공연예술의 모든 장르를 아우르는 공공극장

대학로극장 쿼드QUAD

7월 21일 개관하는 대학로극장 쿼드는 '가변형 블랙박스 극장(372석)'으로 주목받고 있다. 관객이 객석에 앉아 정면의 무대를 바라보는 기존의 프로시니엄Proscenium, 액자형 무대 형태의 극장에서 탈피해 객석과 무대가 고정돼 있지 않고 공연에 따라 자유롭게 변형할 수 있어 장르와 형식에 갇히지 않는 새롭고 다양한 예술 실험과 경험이 가능하다. 또한 객석, 무대, 분장실 등 극장 전 구역에 유니버설 디자인을 적용해 장애·비장애와 관계없이 창작자와 관객 모두의 접근성을 높이고자 했다.

쿼드는 동시대적 가치를 미학적으로 구현하고 예술가와 관객의 변화를 이끄는 무한한 가능성의 공간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해 대학로에 새롭게 구성한 극장으로, 창작 초연 중심의 '1차 제작·유통극장'으로 운영된다. 올해는 2023년 정식 운영에 앞서 프리-오픈 시즌Pre-Open Season으로 운영할 예정이다.

대학로극장 쿼드는 7월 21일부터 8월 28일까지 6주간 음악, 무용, 전통, 연극, 다원 등 다양한 분야의 12개 공연을 통해 새로운 극장 쿼드의 가능성을 시험하는 개관 페스티벌을 개최한다. 이후에는 동시대의 다원성을 보여줄 수 있는 작품의 기획·제작을 준비하고 있다. 향후에는 제작한 작품 중 예술성이 높은 우수 콘텐츠를 25개 자치구 극장에 유통·배급하는 공공극장의 역할을 수행한다. 다양한 사회적 가치를 담아내며 다변화하는 창작 환경에 민첩하게 대응하는 쿼드의 행보를 지켜보자.

위치 서울시 종로구 동숭길 122
서울문화재단 대학로센터(구 동숭아트센터) 지하

1 2021 대학로극장 쿼드 시범공연
<휘이잉 hwi-i-ing>
2 대학로극장 쿼드 극장 내부

대학로극장 쿼드 개관 페스티벌 포스터

※ 예매 및 공연별 상세 정보는 대학로극장 쿼드 누리집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www.quad.or.kr

음악①	개관 페스티벌 1주차	
몰토 콰르텟	7.21(목)	클래식 JUST BACH
이명주 박종해 조진주 이재형 신경식 이호찬	7.22(금)	클래식 Classic in QUAD
Moon(혜원)	7.23(토)	재즈 A Dream in the Summer Night
연극 | 개관 페스티벌 2주차		
극단 풍경	7.29(금) ~31(일)	연극 OiL
무용 | 개관 페스티벌 3주차		
99아트컴퍼니	8.4(목)	한국무용 제VER.2 <타오르는 삶>
프로젝트 클라우드나인	8.5(금)	발레 COMBINATION
앰비규어스댄스컴퍼니	8.6(토)	현대무용 생 날 몸뚱아리
음악② | 개관 페스티벌 4주차		
Silkroad Music Friends	8.11(목)	퓨전국악 전통한류 '바람불다'
해파리 HAEPAARY	8.12(금)	얼트 일렉트로닉 Born by Gorgeousness
신노이	8.13(토)	월드뮤직 신노이의 新심방곡
전통극 | 개관 페스티벌 5주차		
천하제일탈공작소	8.19(금) ~21(일)	탈춤극 풍편에 넌즐 들은 <아가멤논>
다원 | 개관 페스티벌 6주차		
권병준	8.26(금) ~28(일)	다원 싸구려 인조인간의 노랫말2 (로봇야상곡)

1 2020 장애·비장애 문화예술 동행 프로젝트 <같이 잇는 가치>의 무용 퍼포먼스 '무용수-되기'(퍼포머: 김원영, 최기섭)
2 2021 웹진 [연극in] 희곡 현장 감상
3 서울문화재단 대학로센터 2층에 위치한 아트라운지

장애·비장애 예술이 공존하는 문화예술 플랫폼

서울장애예술창작센터

서울장애예술창작센터가칭, 전 잠실창작스튜디오가 9월 대학로에 개관한다. 서울장애예술창작센터는 2007년 '서울장애인미술창작스튜디오'로 개관해 장애 예술인의 활동을 지원해 오다가 사회에서 장애 예술인이 비장애 예술인과 동등하게 인식되길 바라는 뜻에서 2012년 '잠실창작스튜디오'로 이름을 바꿔 재개관했다. 그리고 2022년 잠실종합운동장 주경기장의 리모델링 착공 일정으로 인해 오는 10월 대학로로 이전해 서울장애예술창작센터로 새롭게 태어난다.

장애예술은 고유한 감각을 기반으로 하는 하나의 분야로 인정받으며 예술 현장에서 새롭게 떠오르고 있다. 서울장애예술창작센터는 공연, 전시, 교육 등을 통해 장애·비장애인이 공존하고 장애예술의 가치를 확산하기 위한 다양한 기획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있다. 잠실창작스튜디오에 이어 대학로에서도 전동휠체어 충전기를 설치하는 등 장애인 접근성을 한층 높인 적극적 배리어프리 공간을 마련한다.

서울장애예술창작센터는 장애 예술인의 창작 기반을 지원하고 창작 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해 연간 5억 원의 예산을 장애 예술인에게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이전 공간인 대학로의 공간적 이점을 살려 대학로센터, 극장 쿼드를 포함한 인근 문화예술 자원과 활발하게 교류할 계획이다. 서울장애예술창작센터가 동시대적·미학적·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것은 물론 장애 예술인이 안정적으로 창작 활동을 하는 문화예술 플랫폼으로 성장하기를 바란다.

위치 서울시 종로구 대학로12길 31 대학로 자유빌딩 2층

2

3

시민과 창작자가 소통하는 연극 중심 창작 허브

서울연극센터

현재 대학로 인근 임시 공간에서 운영 중인 서울연극센터가 낙후된 건물의 리모델링 및 증축 공사를 거쳐 오는 11월 재개관한다. 옛 혜화동사무소에 설립된 서울연극센터는 2007년 관객의 공연 정보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목적에서 '서울연극정보센터'라는 이름으로 개관한 대학로의 연극 전문 창작공간이다. 2014년 일부 시설 리모델링 후 장르에 기반한 창작 예술을 꾸준히 지원해 왔다.

새롭게 재개관하는 서울연극센터는 연극 창작, 지원, 공연에 특화된 공간으로 설계됐다. 총 4층 규모로 1층은 교육 라운지(오픈 북라운지), 홍보 라운지, 2층은 연극 창작자들을 위한 아카데미룸·세미나실·공유랩, 3층은 다목적 창작 스튜디오인 화이트박스, 4층은 운영 사무실로 구성돼 있다. 특히 화이트박스는 소규모 공연 발표부터 다원 전시까지 가능한 실험형 스튜디오다. 진입부에 혜화역 광장과 연계한 쌈지공원을 만들어 센터 이용자뿐만 아니라 일반 시민도 편하게 휴식할 수 있도록 조성했다.

서울연극센터가 재개관을 준비하면서 기대하는 것은 시민과 창작자가 어우러지는 '연극 중심 창작 허브'로서 시민과 예술가로 붐비고 북적이는 열린 공간이 되는 것이다. 희곡 창작자의 산실이자 시민 누구나 언제든지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문화 향유 공간으로 서울연극센터가 자리매김하기를 기대한다.

위치 서울시 종로구 대명길3

자생적 예술 생태계를 위한 열린 거버넌스

예술청

지난해 개관한 예술청은 기존의 예술인 창작 지원, 교류, 통합 상담, 정보 지원 등의 기능을 더욱 강화한다. 예술인이 직접 참여해 예술인 복지와 창작 기반을 조성하는 지속 가능한 열린 거버넌스 체제로 운영하며 한국예술인복지재단 등 타 기관과 협력하고 대학로 생태계와 연동하는 다양한 프로젝트를 운영해 사각지대 없는 예술인 지원에 나선다.

예술청의 주요 사업 중 하나는 예술인통합상담지원센터 운영이다. 예술인의 복지 및 저작권 등에 관한 1:1 법률 컨설팅과 심리상담 등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대학로센터의 디지털 키오스크 및 모바일 앱을 통해서는 지원사업·공모 등 개별 예술인에게 최적화된 정보를 지원한다. 예술 활동에 필요한 법률 지식 강연, 공정한 창작 환경과 권리를 주제로 한 워크숍, 예술인 창작 활동 역량 강화를 위한 복지·권익 교육 등도 더 활발히 진행할 예정이다.

한편 예술청은 예술인이 아닌 시민에게도 한발 더 다가갈 준비를 하고 있다. 예술가와 시민이 모두 머무를 수 있는 문화 공간으로 거듭나기 위해 커뮤니티형 카페 '대학로카페 쿼드'를 조성 중이다. 카페라는 친근한 문화 공간을 통해 시민들이 예술 작품을 자연스럽게 접하고 경험할 수 있도록 전시 갤러리로도 활용하며, 강연·워크숍·교육 등 상설 프로그램도 운영할 계획이다. 향후 예술인과 시민을 동시에 아우르는 서울예술인종합지원센터로서 예술청의 기능과 역할을 더욱 강화해 나갈 것이다.

위치 서울시 종로구 동숭길 122
서울문화재단 대학로센터(구 동숭아트센터) 1~2층

글 장보영_객원 기자 | **사진** 서울문화재단

페스티벌 in 대학로

대학로에서 열리는 하반기 주요 문화예술축제

서울문화재단 외에도 많은 공공기관과 협회·단체가 대학로를 베이스 캠프로 활동하고 있다. 한국예술인복지재단, 한국장애인문화예술원, 지역문화진흥원, 예술경영지원센터, 전문무용수지원센터,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서울연극협회 등 다양한 문화예술 기관과 단체에서 매해 유익하고 흥미로운 사업, 프로젝트, 축제 등의 행사를 기획하고 진행한다. 그중 하반기에 열리는 주요 문화예술축제 4개를 소개한다.

국내외 공연 예술의 트렌드를 알 수 있는 자리

서울아트마켓

'서울아트마켓Performing Arts Market in Seoul, PAMS'은 활발한 창작과 제작 문화를 기반으로 한국 공연예술 작품의 합리적 유통과 해외 진출 활성화를 위해 2005년부터 개최하고 있는 예술 마켓이다. 예술경영지원센터가 주최·주관하며,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후원한다. 지난해에는 코로나19 팬데믹 영향으로 포스트 팬데믹 시대의 국제 이동성Next Mobility 등의 담론을 다루며 문화예술 유통의 새로운 대안을 찾는 자리를 가졌으며, 온라인 부스 전시 공간에서 국내외 공연예술 전문가의 정보를 자유롭게 주고받는 '팸스그라운드', 국내외 공연예술 분야의 최신 이슈를 중심으로 전문가가 모여 정보를 공유하고 토론하는 '팸스살롱' 등을 진행했다. 또한 '팸스초이스'라는 이름으로 해외에서 주목받는 다양한 공연을 쇼케이스 형식으로 선보였다. 올해 서울아트마켓은 9월 26일부터 29일까지 대면(대학로)과 비대면(온라인 플랫폼 'PAMS ON')으로 개최한다.

누리집 pams.or.kr

동시대 관점과 시대적 가치를 담아내는 국제 공연예술축제

서울국제공연예술제

올해로 제22회를 맞이하는 2022 서울국제공연예술제Seoul Performing Arts Festival, SPAF가 예술경영지원센터의 주최,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등의 후원으로 개최된다. 10월 7일부터 30일까지 서울문화재단 대학로극장 쿼드QUAD, 아르코·대학로예술극장 등에서 개최될 이번 축제는 '전환轉換, Transforming'이라는 주제로 예술의 영역에서 전환되고 있는 다양한 가치, 관점, 형식 등을 살펴볼 예정이다. 올해 축제에서는 해외작 3편을 포함해 총 17개 작품을 선보이며 이외에도 마스터 클래스, 워크숍, 관객과의 대화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가을 공연예술계를 풍성하게 할 예정이다.

누리집 spaf.or.kr

어린이청소년을 위한 공연예술의 모든 것

아시테지 국제여름축제

(사)국제아동청소년연극협회가 주최하는 '아시테지 국제여름축제'는 어린이청소년을 위한 국내외 연극뿐 아니라 무용극, 음악극, 오브제극 등 다양한 공연을 한자리에서 만나볼 수 있는 한국 최대 규모의 어린이청소년을 위한 공연예술축제다. 1993년 '서울어린이연극제'로 시작해 1995년부터 해외 우수 어린이청소년극을 초청하며 국제 공연예술제로서 면모를 갖춰나갔다. 2009년 '아시테지 여름축제'에 이어 2013년부터 '아시테지 국제여름축제'로 이름을 바꿔 개최하고 있다. 올해 제30회를 맞은 '아시테지 국제여름축제'는 '공연에 닿다. Touch! 마음을 잇다. Connect!'라는 주제로 7월 20일부터 31일까지 아르코예술극장 대극장과 소극장에서 개최된다. 코로나19 이후 2년 만에 해외 2개 나라의 작품(일본의 손그림자극 〈핸드 셰도 판타지 ANIMARE〉, 스웨덴의 넌버벌 댄스극 〈네네네〉)을 포함해 총 9편의 작품이 대학로 아르코예술극장에서 관객과 만난다. 전시·체험 프로그램, 온라인 극장도 함께 선보이며 관람 후에는 예술가와 함께하는 워크숍 등 관객이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열린다.

누리집 assitejkorea.org

장애라는 이름의 가능성, 접근성, 역동성

장애인문화예술축제 'A+ Festival'

'A+ Festival'은 장애인의 잠재적 가능성Ability, 열린 접근성Accessibility, 활기찬 역동성Activity을 모토로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예술Arts로 함께All Together한다는 취지로 2009년부터 개최하고 있는 장애인문화예술축제다. 한국장애인문화예술단체총연합회가 주최하고 장애인문화예술축제조직위원회가 주관하며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장애인문화예술원이 후원한다. 지난해에는 '스며들다'라는 주제로 장애와 비장애의 경계와 차이를 없앤 자리에 예술이 아름다움으로 스며든다는 취지로 온라인에서 진행했으며, 올해는 코로나19 팬데믹 시대를 통과한 모든 사람에게 장애인 예술로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고 뉴노멀 시대를 맞아 장애인 문화예술이 희망의 날개를 갖고 날아오른다는 의미에서 '날아올라'라는 주제로 9월 1일부터 3일까지 대학로 마로니에 공원 일대에서 열린다. 올해 홍보대사는 4천여 명의 얼굴을 그린 캐리커처 작가이자 배우 정은혜와 소외계층에 대한 나눔 활동을 이어오는 가수 김장훈이 선정됐다.

누리집 fdca.or.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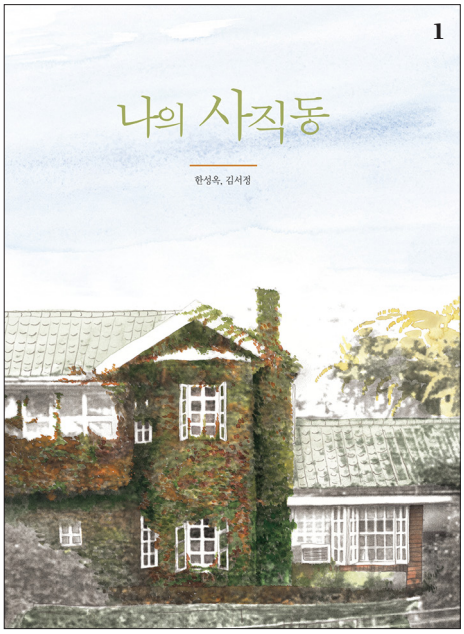
글 장보영_객원 기자 | **사진** 각 축제 홍보팀

보고타 도서전, 박연철 작가의 워크숍에서 아이들보다 더 많이 몰려들어 열심히 종이인형을 만들고 있는 어른들.

그림책을 왜 어른이 보냐고?

동화·그림책에 빠진 어른들

—— 왜 그림책 읽는 어른이 늘어나느냐고? 이 질문에 대한 답으로 가장 먼저 드는 생각은, '간단하지, 뭐. 그림책 읽던 아이들이 어른이 됐잖아?'였다. 한국 그림책 시장이 폭발적으로 넓어지던 2000년대 초중반 그림책을 읽던 아이들이 이제 그 장르에 익숙한 어른이 된 것이다. 그림책의 아름다움과 즐거움을 아는 그들이 경제력을 갖춘 성인으로서 자신을 위한 그림책을 사 읽는 일에 주저하지 않게 된 것이다. 그런 독자층이 늘어나는 것을 본 그림책 동네에서 작가나 출판인이 어른을 위한 그림책을 만드는 일에 주저하지 않게 되기도 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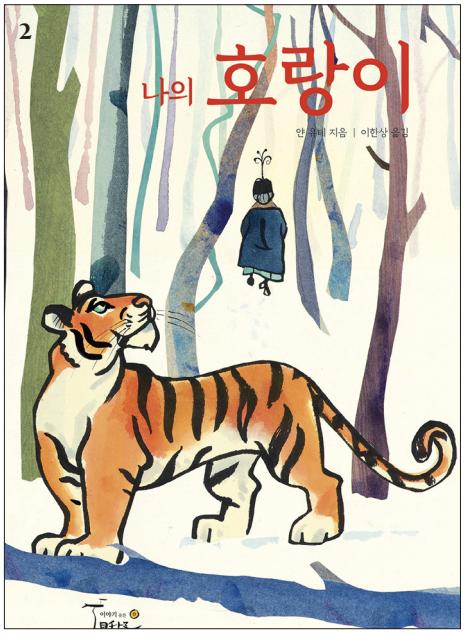


그림책, 자신을 발견하고 자기 삶을 재구성하는 장

또 다른 이유는, 아이들에게 그림책을 사서 읽어주던 어른들이 그 안에서 자신을 충족해 주는 어떤 것을 발견하고 적극적 독자로 돌아선다는 점이다. 나는 2003년 나온《나의 사직동》(한성옥 그림, 김서정 글, 보림)이라는 그림책에 글을 쓴 적이 있다. 한성옥 그림 작가가 수십 년 살아온 광화문 집이 재개발로 철거되기 전 그 동네를 책 속에 살려 내놓고 싶어 했고, 그의 기획과 구성과 그림에 내가 글을 보탰다. 초등학교 고학년에서 중학교 시절을 지나는 주인공, 사진을 기반으로 한 픽션적 그림, 어른 작가의 시각과 사고와 감성이 아이의 그것들과 섞여 있는 (그러니까 온전히 아이답지 않은) 글 등 여러 면에서 약간 모험인 책이었다. 그때만 해도 그림책은 아이들 읽을거리라는 통념이 지배적이었으니까. 하지만 그 책에 대한 독서 후기를 통해 나는 그림책의 지경이 확실히 넓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거기에서는 아이와 함께 읽으면서 이런 것을 알려줬고 함께 생각했다는 말보다는 내 어린 시절 고향 집에 대한 그리움이 주로 토로되고 있었다. 어른들은 그림책을, 자신을 발견하고 자기 삶을 재구성하는 장으로 받아들이기 시작했던 것이다.

사실 그러한 움직임은 2001년 나온《돼지책》(앤서니 브라운 지음, 허은미 옮김, 웅진주니어)에서 먼저 감지됐다. '대단히 중요한' 회사나 학교에 다니는 남편과 아들들에게 너무나 하찮은 존재로 취급당하며 노예처럼 일하던 엄마가 "너희들은 돼지야!"라고 일갈하며 집을 나가버리고, 남자들이 정말 돼지로 변하는 이야기. 돌아온 엄마에게 그들이 무릎 꿇고 사죄하며 이후로 집안일을 열심히 한다는 (그리고 엄마는 자동차를 고친다!) 결말은 수많은 엄마에게 크나큰 카타르시스를 안겨줬다. 제대로 된 평가나 존중이 없는 가사노동으로 인한 여성들의 억눌린 분노는 이 분출구에 폭발적으로 반응했는데, 특히 한국에서 열렬했던 이 응답의 사회사적 의미가 그림책 역사에서 제대로 짚어지지 않은 점이 아쉽다.

그림책이 독자에게 자신의 삶의 실체와 의미를 돌아보게 만들 수 있는 것은, 그것이 스토리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스토리는 복잡한 인간과 긴 인생의 정체를 어느 부분 번개처럼 파악하게 만들어준다. 긴 이야기는 구체적이고 세밀한 사건



1 《나의 사직동》, 한성옥 그림, 김서정 글, 보림
2 《나의 호랑이》, 얀 유테 지음, 이한상 옮김, 월천상회
3 《내가 예쁘다고?》, 황인찬 지음, 이명애 그림, 봄볕
4 《돼지책》, 앤서니 브라운 지음, 허은미 옮김, 웅진주니어
5 《여름이 온다》(비룡소)는 한국 최초로 '아동문학의 노벨상'으로 불리는 '안데르센상'을 수상한 이수지 작가의 그림책이다.

과 배경과 인물을 통해 특정 인간과 인생에 대해 말하지만, 짧은 이야기는 추상적이고 함축적인 장치들을 가지고 모든 인간과 보편적 인생을 담아낸다. 옛날 어떤 곤경에 처하거나 어떤 소원을 가진 아이가 어떤 도움을 받아 어떻게 잘살게 됐다는 전래동화를 사람들이 내 이야기처럼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 그 때문이다.

글의 스토리는 이해를, 그림의 스토리는 위로를

그림책도 그처럼 굵고 짧은 이야기 안에 독자가 자신을 펼쳐낼 수 있는 여지를 풍성하게 가지고 있는 장르다. 그림책 역사에 남는 책은 대부분 그런 스토리를 탄탄히 펼친다. 《괴물들이 사는 나라》《강아지 똥》《지각대장 존》《알사탕》《파도야 놀자》《프레드릭》 등. 자존감 없고 외로운 독자는 자신을 희생시켜 다른 생명을 꽃피우는 순교자가 될 수도, 훌륭한 시인이 될 수도, 남의 마음을 읽어내어 너그러워질 수도 있다. 용기 없어 주저하는 독자는 미지의 세계를 향해 치고 나갈 수 있고, 현실이 잿빛인 독자는 환상을 통해 그것을 넘어설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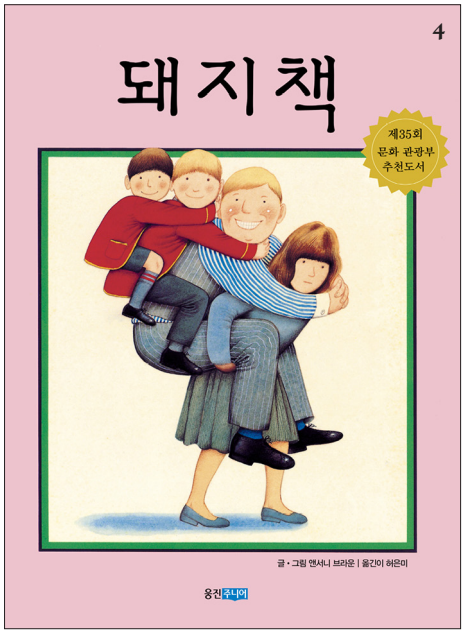
그림책을 자기 것으로 받아들이는 어른 독자는 아마 그림책 스토리의 이런 기능을 부지중에 흡수했을 것이다. 자기 자신이라는 인간과 자기 자신의 삶을 파악하기(얘가 꼭 나 같네. 아아, 내가 그래서 그랬구나), 기억에 의해 재구성되거나 소망에 의해 개선된 세부적이고 내밀한 자아를 그 안에 짜넣기(내가 하는 일이 이렇게 세계를 다니며 꽃씨 뿌리는 일 같은 거야. 그래, 난 시인이야). 그래서 그림책을 보면 눈앞이 환해지고 마음이 그득해지는 반응이 드물지 않게 나오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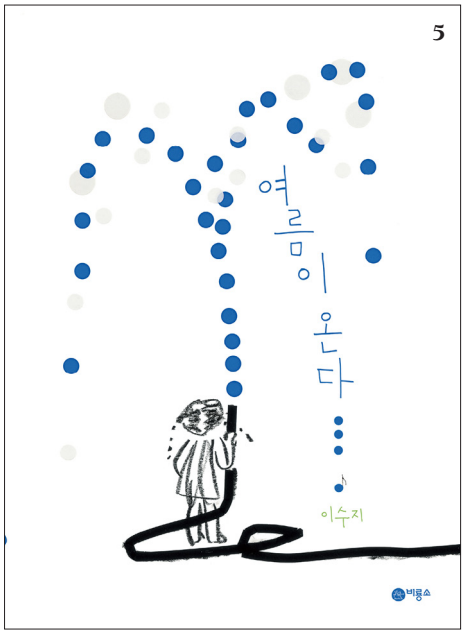
게다가 그림책에는 스토리 외에 그림이 있다. 이성과 의식을 작동시키는 글에 감성과 무의식을 추동하는 그림이 합쳐져 그림책은 다른 어떤 장르보다도 심리적, 정서적으로 깊은 울림을 끌어낸다. 그리하여 글의 스토리가 어떤 이해를 준다면 그림의 스토리는 어떤 위로를 건넨다. 최근에 엄마

를 여읜 나는 장례식장에 친구가 들고 온 그림책《나의 호랑이》(얀 유테 지음, 이한상 옮김, 월천상회)에서 큰 위로를 받았다. 혼자 살던 할머니가 겨울 숲속에서 호랑이를 만난다. 할머니와 함께 집으로 와서 살게 된 호랑이는 마을 귀염둥이 노릇도 하지만 점점 기운이 없어지고 줄무늬도 희미해진다. 배를 타고 먼 길을 가서 호랑이를 고향에 데려다주고 온 할머니. 하지만 호랑이를 대신할 어떤 것을 찾게 된다. 이 이야기에서 나는 할머니였고, 엄마는 호랑이였다. 아름답고 위엄 있는 호랑이. 할머니와 살고 싶기도 하지만 가야 할 곳이 있고 가야 할 때가 있는 호랑이. 정성스레 호랑이를 보내주지만 미련은 보이지 않고 다시 행복하게 살길을 찾는 할머니. 생각도 못 했던 방식으로 나와 엄마의 관계, 엄마의 떠남, 그 뒤 나의 위치를 짚어준 그 그림책이 없었다면 나는 아마 훨씬 오래, 훨씬 많이 힘들어했을 것 같다.

최근의 에피소드 하나. 서울국제도서전 출판사 부스에《내가 예쁘다고?》(황인찬 지음, 이명애 그림, 봄볕)라는 그림책이 쌓여 있었다. 떠꺼머리 남학생(초등학교 3, 4학년생쯤?) 하나가 여자 짝이 "참 예쁘다"라고 중얼거리는 소리를 듣는다. '내가 예쁘다고?' 화들짝 놀란 녀석은 하루 종일, 다음 날까지 넋이 나간 채 예쁨에 대해 생각한다. 그 귀여운 장면들 뒤로 귀여운 반전도, 예쁜 깨달음도 있는데, 놀랍게도 그 북새통 속에 책장을 넘기던 나이 지긋한 아주머니 독자들이 눈물을 닦는 것이었다. '내가 예쁘다고?'에 담긴 설렘, 기대, 갈망, 실망, 회복 같은 것들이 파도처럼 몰려와 덮쳤을 것이다. 그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는 본인만 알 수 있지만, 그림책은 그것을 꺼내어 나누는 일을 주저하지 않게 만든다. 그 놀라운 힘은 그림책을 함께 읽으며 자기를 열어 보이는 수많은 모임에서 확인할 수 있다.

그래도 왜 어른이 그림책을 읽는지 궁금하다면, 마지막 이유. 다른 예술 장르들은 어른의 영역에서 아이들 영역으로 내려온다. 하지만 그림책만은 아이들 영역에서 어른의 영역으로 솟아 올라간 장르다. 엄청난 에너지가 아닐 수 없다. 그런 에너지를 어떻게 외면할 수 있단 말인가. 이 글을 읽는 당신도 조만간 끌려 들어갈 것이다.





글 김서정_동화·그림책 평론가, 번역가

사진 제공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보림, 봄볕, 월천상회, 웅진주니어, 비룡소

68개 예술교육단체가 모인 학습 현장 속으로

서울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 러닝캠프 Learning Camp

여기, 서울 곳곳에서 예술교육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 예술 전문성을 바탕으로 교육과정을 구성해 시민들에게 배움과 성장, 치유와 전환의 기회를 제공하는 사람들. 창작지원사업과 마찬가지로 교육지원사업에 선정된 이들에게는 주어진 지원금의 범위에서 기획과 실행의 자율성이 보장된다. 지역을 선정하고 이슈를 제시하는 단계부터, 예술교육 프로그램의 연구·개발·운영, 교육과정을 홍보하고 참여자를 모집하는 것까지 모두 선정자의 몫이다. 이들은 예술가이자 교육자이고 강사이자 기획자다.

하나의 예술교육사업을 운영하는 데에는 다방면에서 높은 수준의 역량이 필요하다. 팔방미인 역할을 해야 하는 이들을 위해 서울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에서는 6월 2일~3일 이틀간 공동 학습의 장을 열었다. 올해 센터의 예술교육 지원사업에 참여하는 총 68개 단체가 모두 모여 각각의 관심사에 맞는 강의를 수강했고, 각자의 고민과 당면한 이슈를 공유했다. 이날 대학로센터 각 공간은 예술교육가들을 위한 캠퍼스로 변모했다.

가르치기 이전에 공부하는 예술가

얼마 전 한 현직 교사가 퇴임식에서 "교사는 가르치기 이전에 공부하는 직업이다"라는 말을 남겼다고 한다. 누군가를 가르치기 위해서는 필연적으로 본인이 먼저 공부해야 한다. 공부하는 과정에서 사람들은 새로운 것을 알게 되는 기쁨과 동시에 자신의 무지를 인지하는 지적 겸허의 과정을 겪는다. 이날 러닝캠프에 모인 예술교육가들 또한 공부하는 사람임이 분명해 보였다. 프로그램이 시작된 오전 9시부터 강의실은 노량진 학원가를 방불케 하는 학습 열기로 가득 찼다. 참여자들의 진지한 태도에 강사와 담당자도 함께 고양됐다. 행사는 예술교육의 근간이 되는 철학과 교육 설계의 기본 원리를 알려주는 통합 강의로 문을 열었다. 그리고 이후 참여자들은 개인 관심사에 따라 예술교육 기획·연구·사례를 주제로 한 3개의 강의 중 하나를 선택해 참여했다.

공부 잘하는 예술가, 놀기도 잘한다

강의와 강의 사이, 참여자들은 대학로센터가 〈서울 스테이지11〉의 일환으로 섭외한 국악 밴드 '악단광칠'의 공연을 관람했다. 방금까지 강의실에서 하나라도 놓칠세라 필기하던 참여자들은 언제 그랬냐는 듯 마당으로 나가 흥겨운 가락을 들으며 어깨를 들썩였다. 예술이 주는 에너지와 유희성을 온몸으로 느끼기에 충분한 공연이었다. 네덜란드의 역사학자이자 철학자 요한 하위징아Johan Huizinga가 인간을 호모 루덴스(유희하는 인간)라 정의했듯 예술은 인간 놀이의 과정이기도 하고, 결과이기도 하다. 그중에서도 인간 본연의 유희 본능을 교육과정 설계와 연관시키는 것이 특히 중요한 '유아 예술교육'을 주제로 진행된 워크숍에서는 놀이의 가치를 직접 체험해 보기도 했다. 참여자들은 일상의 사물에서 놀이를 찾아내는 연습을 하고, 즉석에서 만들어낸 놀이로 다 같이 놀았다. 진행자의 놀이 가방을 뒤지면서 "이건 뭐냐"고 묻는 참여자들의 모습이 영락없는 아이다. 각자 '내 안의 어린이'를 만난 이후 교육 체크리스트를 진지하게 작성하며 아이만큼 즐겁게 놀고 더 빠르게 본업으로 전환하는 선생님들의 모습에 박수를 보냈다.

슬기로운 예술교육 연구 생활을 위해

예술교육가들은 단순히 사람들에게 예술을 가르치는 것 이상의 역할을 한다. 예술과 다른 분야를 적극적으로 연결하는 주체이자 예술을 매개로 지역민의 이야기를 듣고 소통하는 매개자 역할까지, 예술교육가에게 요구되는 역할은 점차 확장되는 추세다. 개별 프로그램 운영을 넘어 본인의 교육 환경·대상·지역·자원 등을 적극적으로 탐구하고 그 결과를 공론화하는 역할, 일명 '연구'를 하는 팀들도 있다. 올해 연구에 참여하는 24개 팀은 자기 안에 솟아나는 갖가지 의문점

을 연구해 탐구하고 입증해 나간다. 연구 과정에서 막막함을 느끼는 다수의 팀을 위해 이번 러닝캠프에서는 연구 활동의 가이드를 제공하는 데 신경 썼다. '현장에서는 어떻게 연구할까?'라는 강의 세션에서는 예술교육 현장 연구자들이 지녀야 할 태도와 언어에 대해 다뤘고, 각 연구 주제별로 진행된 2일차 3개의 워크숍 세션에서는 공통의 연구 프로세스와 방법론, 활용 툴에 대해 다루는 한편 각 연구팀이 각기 연구하는 주제를 공유해 상호 학습을 진행했다. 다양한 사람들이 공통의 이슈를 공유하고 함께 답을 찾는 과정을 통해 본인의 연구 주제를 객관적으로 점검하고, 입체적으로 바라보는 기회가 됐다.

예술교육, 그동안 안녕하셨는지요?

코로나19로 몇 년 동안 같은 사업에 참여하는 단체 간에도 만날 기회가 거의 없었다. 담당자가 모두 모여 2회에 걸쳐 진행한 간담회는 오랜 웅크림에서 깨어나는 자리였다. 참여자들은 자신과 유사한 고민을 하는 사람들이 가까운 거리에 존재함을 확인했고, 다른 이들이 시도하는 다양한 예술교육 이야기를 들었으며, 본인의 고민과 속사정을 꺼내놓았다. 예술교육 관련 주제에 대해 각자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해

참여자 현장 인터뷰

A "'예술가로서의 교육'과 '교육자로서의 예술교육' 사이에서 우리가 가야 하는 방향에 대한 의문점이 들 때 조언해 주는 것과 같았다. 다시 초심으로 돌아가 사업의 목표와 방향에 대해 생각해 보고, 점검해 볼 수 있었다. 기획자의 번잡한 마음을 정돈해 줬다."

B "다른 단체와 고민과 생각을 나누는 것 자체가 참 좋았다. 오랜만에 함께 신나게 즐겁게 놀았다."

C "현장에서 연구자로 선다는 것에 대한 용기와 의의를 새롭게 발견할 수 있었다."

D "현장을 다각도로 다시 생각해 볼 수 있었다. 다른 시각과 생각 전환의 시사점."

E "문화예술교육의 기초와 근간이 되지만 간과하기 쉬운 관점을 다시금 새겨볼 수 있는 시간이었다."

단순히 투표 한 번 하는 일이, 서로 인사하고 연락처를 교환하는 평범한 일이 코로나19를 겪어온 예술교육가들에게는 위안을 줬다. 서울의 예술교육 최전선에서 활동하는 사람들이 함께한 이번 학습과 교류의 자리가 어떤 나비효과를 가져올지 궁금하다. 2022년 이들이 사업을 꾸려나가는 과정에 어떤 전환이 있을지, 시민들이 누리는 예술교육에는 어떤 변화의 지점이 있을지, 사회적 거리두기가 완화된 청량한 여름과 함께 희망을 가지고 상상해 본다.

※2022 서울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 러닝캠프 강사진 소개 및 프로그램 구성은 서울문화재단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글 이고은_서울문화재단 서울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사진 서울문화재단

● 6월 프로그램

1일차 | 6월 2일(목)

세션명	내용		강사명
오프닝	행사 소개 및 인사		우연 (서울문화재단 예술교육본부장)
러닝 세션1	예술이 함께하는 경험, 어떻게 교육으로 설계할까?		한지연 (서울문화재단 예술교육본부전문위원, 교육공학 박사)
공연	<서울 스테이지11> 공연 관람		악단광칠
러닝 세션2	기획력	예술교육 기획, 사람보다 동시대 이슈가 앞서나가지 않도록	최선영 (유구리최실장)
	연구 방법론	예술교육 연구 방법론 및 프로세스 "현장에서는 어떻게 연구할까?"	최혜자 (문화디자인자리)
	사례	일상의 감각을 반영하는 예술작업, 그와 평행선에서 상호작용하는 예술교육	이수진 (시각예술가, 서서울TA)
네트워킹	네트워킹 간담회, 상호 이슈 공유		서울문화예술교육 지원센터

2일차 | 6월 3일(금)

세션명	내용		강사명
연구 세션 1, 2	R&D	슬기로운 연구생활_지역연구 편: 연구주제 구체화부터 자료정리까지	최혜자 (문화디자인자리)
		슬기로운 연구생활_대상연구 편: 연구주제 구체화부터 자료정리까지	현혜연 (중부대 사진영상학)
		슬기로운 연구생활_통합예술교육 편: 연구주제 구체화부터 자료정리까지	김혁진 (모든학교 체험학습 연구소)
	유아	어린이의 시선 발견 워크숍 과정개발 현황 공유 및 피드백	조재경 (고무신학교)
	문화예술 교육사	CoP 주제 설정 논의	사업담당자
연구 세션 3	전체 공유 및 피드백, 네트워킹 간담회		최혜자, 현혜연, 김혁진, 조재경

※ 문화인의 제목 서체는 박상원 서울문화재단 이사장의 필체를 본떠 만든 '박상원체'를 사용했습니다.

평범한 길을 'No!' 하는, 그만의 노(No)력

바이올리니스트 조진주

서울문화재단 대학로극장 쿼드QUAD가 개관을 맞아 페스티벌을 선보인다.
11개 장르 12개 작품을 선보이는 페스티벌 중 7월 22일 공연은 조진주(바이올린)와 이명주(소프라노), 박종해(피아노), 이재형(바이올린), 신경식(비올라), 이호찬(첼로) 등 국내외에서 활약하는 젊은 음악가가 클래식 콘서트홀이 아닌 블랙박스 공연장 쿼드에 오르는 시간이다. 모차르트의 피아노 4중주를 비롯해 바로크부터 후기 낭만주의에 이르는 선곡을 통해 우리에게 실내악의 묘미를 선보일 예정이다.
그 공연 중심에 조진주가 있다.

대학로극장 쿼드에서 선보일 실내악의 미학

6월 중순, 조진주와 힘겹게 연락이 닿았다. 7년 전부터 음악 감독을 맡고 있는 '앙코르 체임버 뮤직 캠프' 기간이었기 때문이다. 조진주가 직접 만든 음악 캠프로 매해 6월 첫째 주에 시작한다. 올해도 어김없이 돌아온 캠프의 시작을 끊느라 그러했는지, 화상통화의 화면 너머 그의 모습이 피곤해 보였다. 하지만 목소리는 바이올린의 고음처럼 쨍쨍하다.

"음악적인 부분은 물론 운영에도 많이 신경 쓰고 있어요. 이제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데 경영과 펀드를 통해 더욱 단단하게 다지려고요. 학생들에게 도움이 되는 다양한 음악가도 좀 더 열심히 초청하려 합니다."

체임버 뮤직Chamber Music은 '실내악'을 뜻한다. 2명에서 많게는 10여 명이 함께하는 음악이다. 이러한 '실내악'은 음악을 통해 서로의 믿음을 쌓아가는 '신뢰악'이기도 하고, 그 과정에 실수라도 하게 되면 음악에 균열을 내는 '실례악'이 되기도 한다. 음악가는 신뢰와 실례 사이에서 성장해 나간다. 월간《객석》의 올해 2월호 표지를 장식한 조진주는 인터뷰에서 '실내악'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다시 봐도 조진주의 실내악론論 같다. 7월 22일 대학로극장 쿼드에서 올리는 공연도 실내악을 선보인다.

"저에게 실내악은 음악의 한 장르라기보다는 인생 철학에 가깝습니다. 현악 4중주를 한 번이라도 경험해 본 사람은 다 동의할 겁니다. 우정의 진정한 의미를 4중주를 하며 배웠다는 것을요. 실내악은 동등하게 하지 않으면 교류 자체가 이뤄지지 않는 포맷입니다. 상대방의 소리를 주의 깊게 들었던 사람과 내 소리만 들었던 사람의 음악은 다를 수밖에 없죠."

그는 모교 클리블랜드 음악원 교수를 거쳐 현재 캐나다 맥길대 부교수로 재직 중이다. "학교에서는 어떤 교수인가요?" 하고 물으니 "이상한 교수다!"라며 크게 웃는다. 그 웃음과 함께 그가 걸어온 길이 떠올랐다.

자신을 키운 의문, '언젠가 반짝일 수 있을까?'

1988년 출생의 조진주가 20대이던 2010년대 전후. 당시 세계 속 한국 음악계의 위상은 크게 달라지고 있었다. 이러한 에너지의 흐름에는 김다미·최예은·이지혜·클라라 주미 강·신현수 등 조진주와 동갑이거나 한두 살 차이 나는 젊은 바이올리니스트의 존재와 역할이 컸다. 지난 6월 미국 밴 클라이번 콩쿠르에서 우승한 임윤찬(피아노)처럼 그들은 해외의 유수 콩쿠르에 나가 별을 따왔다. 개인의 승리이자 한국의 클래식이 세계로 급부상하던 때였다.

왜 스물여섯 해를 사는 동안 아무도 가르쳐주지 않았던 걸까. 음악을 경쟁시킨다는, 이 말도 안 되는 구도 안에서 우승한다는 것이 누군가를 제쳤다는 기쁨보다는 15년을 넘게 보아온 동료들을 향한 미안함을 불러일으키는 일이라는 것을.

하지만 "20대 때는 계속 성취하지 못하는 게 분하고 초조했다"라는 그의 고백대로 조진주는 위축돼 있었다. 콩쿠르 승전보는 연일 날아들었다. 혹은 어제의 승전보가 오늘의 승전보로 묻히기도 했다. 하지만 기대주였던 조진주의 이름을 찾기는 힘들었다.

조진주가 2021년 5월에 출간한《언젠가 반짝일 수 있을까》(아웃사이트)는 이제는 어느 정도 성공의 반열에 오른 그의 자전 에세이집이다. 책을 펼치면 놀랍도록 솔직한 그녀의 과거가 연주된다. 자신이 걸어온 시간을 성찰하며 고백한 그만의 역사와 용기는 놀라웠다. 자신의 든든한 지원자인 부모와의 갈등, 성장에 분명 스며들어 있지만 누구나 솔직히 고백할 수 없는 교육 환경의 폭력성과 경쟁의 부추김, 이로 인해 함께 살아갈 바이올린에 대한 믿음보다 커진 의심, 명문 학교의 명성도 무효화하는 과감한 자퇴 선언, 성공의 어머니는 아마 '분노'일 것이라는 과감한 발언 등. 이처럼 그의 에세이집은 주어진 노선만 차분히 밟아도 겨우 무사할 수 있는 공연계와 음악 인생에서, 이정표를 걷어차 버리고 일탈의 발자국을 남겨온 그녀의 추억 노트이자 선언문 같은 책이다.

생각해 보면 조진주처럼 고백과 기록을 많이 남긴 젊은 음악가도 없다. 읽고 쓰는 것을 좋아하는 조진주는 한때 공연 노트의 해설도 직접 쓰는 것으로도 유명했다. 그래서 나는 이번 인터뷰도 그녀가 '기록한 활자'를 가져다 쓰기로 그에게 허락을 받았다. 새로운 것에 탐닉하고, 그러면서도 과거

의 시간을 남긴 그녀에게, 인터뷰라는 나의 업무와 수행을 위해 그 과거를 다시 들춰 물을 필요는 없었으니.
이쯤에서 2014년에 그가 직접 쓴 글 하나를 꺼내 본다. 미국 인디애나폴리스 콩쿠르 1위에 입상하며 국내외 음악계의 스타가 됐을 때다. 그는 화려한 인터뷰가 아닌 '굿바이! 콩쿠르 인생'이라는 글(월간《객석》2014년 12월호)로 자신의 시간을 돌아봤다. 첫 문장이 묘했다. 응당 기쁨의 문장이 시작을 끊을 거라 생각했는데 뜻 모를 한숨이 담겼기 때문이었다.

"도저히 모를 일이다. 왜 스물여섯 해를 사는 동안 아무도 가르쳐주지 않았던 걸까. 음악을 경쟁시킨다는, 이 말도 안 되는 구도 안에서 우승한다는 것이 누군가를 제쳤다는 기쁨보다는 15년을 넘게 보아온 동료들을 향한 미안함을 불러일으키는 일이라는 것을 말이다."

세계적 콩쿠르 우승이 수많은 기회와 길을 열어줬지만 그는 안주하지 않았다. 천방지축 바이올리니스트이자 예술가임을 자처했고 스스로 '변덕스러운 여자'라는 것도 선포했다. 2020년에 발매한 정규앨범에는 '라 카프리슈즈La Capricieuse'라는 제목을 붙였다. 불어로 '변덕스러운 여자'라는 뜻이다. 비에니아프스키, 폴디니, 바치니, 이자이 등 10명의 10곡이 조진주의 변덕에 맞춰 현의 춤을 춘다. 그때 조진주의 행보를 보며 '바로크'라는 말이 떠올랐다. '바로크'의 어원은 '울퉁불퉁한 진주'다. '일그러진' '과장된'이라는 뜻도 담고 있다. 조'진주'여서 바로크의 '진주'가 떠올랐고 그만의 일탈과 과장, 변덕은 평범하게 마름질되고 있는 한국 음악계를 향한 '바로크적(울퉁불퉁한 진주적) 선언'이라는 생각이 들어 '바로크'가 생각난 것이었다.

모험과 도전, 세상이 잠시 멈춰도 그의 음악은 계속

그의 학창 시절 이야기다. 조진주는 예원학교에 입학한 뒤 곧바로 미국으로 향했다. 어느 날 그의 어머니가 본 다큐멘터리 때문이었다. 당시 어린 바이올린 학도들의 우상이자 천재 바이올리니스트로 명성을 날리던 사라 장(본명 장영주, 1980~)에 관한 영상물이었는데, 그녀가 매해 미국 콜로라도주에서 열리는 아스펜음악제에 간다는 내용이었다. 조진주는 예원학교에 입학하자마자 콜로라도주로 향했고, 아스펜음악제 콩쿠르에 참여했다. 그리고 그곳에서 평생의 스승 폴 켄터를 만난다.

새로운 것을 준비할 적에 내게 얼마만큼 도움이 될까 싶은 '계산'보다 '재미'를 기준으로 삼아요. 그리고 재밌겠다 싶으면 '미친 추진력'을 발휘하며 덤벼들죠.

"내 운명을 바꾸어놓은 단 한 명의 스승, 폴 켄터는 모든 사람으로 하여금 '이상'의 힘을 믿도록 하는 사람이니까요. 그는 제가 쉴 새 없이 던지던 '왜?'라는 물음에 처음으로 함께 고민해 준, 인생의 유일무이한 사람입니다. 또한 단순히 재능으로만 대하던 '음악'이라는 것을 열정적으로 사랑할 수 있게 이끌어주신 분이기도 하죠."(월간《객석》2015년 12월호)
조진주는 스승을 따라 클리블랜드로 간다. 그리고 그로부터 많은 것을 배웠고 미국의 명문 커티스 음악원에도 당당히 입학한다. 하지만 얼마 후 클리블랜드 음악원으로 돌아왔다. 2016년에는 모교에 임용돼 2년간 교수로 지냈다. 이후 캐나다 퀘벡주 몬트리올 맥길 대학으로 자리를 옮겨 생활하고 있다. "대학이 많고 대학생 인구가 다수라서 진보적인 분위기"라며 "인생에서 지금 나의 시기에 어울리는 곳"이라고 말한다.
그런 그는 일 벌이는 것을 좋아한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세상이 멈췄을 때도 그는 멈추지 않았다. 코로나가 발생한 2020년은 베토벤 탄생 250주년인 해였고, 2021년은 생상스 서거 100주년이 되는 해였다. 생상스의 음악은 김연아 선수

가 애용한 음악(죽음의 무도)으로 잘 알려져 있다. 조진주는 생상스의 바이올린 협주곡 1번과 3번 등 대표적인 바이올린 곡을 음반에 담았다. 지휘는 마티외 에르조그, 연주는 아파시오나토 앙상블이 함께했다.

"녹음은 사흘 동안 파리에서 진행했어요. 코로나19로 파리에 도착하기 하루 전날까지 확신이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음악 외적인 불안감이 커서였는지 오히려 녹음에 대한 부담감이 덜해 녹음에 가벼운 마음으로 임했습니다."

생상스는 "교사·오르가니스트·지휘자·작곡가로서 폭넓은 활동을 했는데 어떻게 해서 자기만의 색깔을 고수하게 됐나 하는 궁금증"에서 비롯된 작업이었다. 조진주 특유의 호기심과 지적 욕구가 생상스와 닿았다. 조진주는 생상스의 음악을 녹음하며 "바이올리니스트를 위해 디자인된 것 같은 편안함"과 "몸에 잘 달라붙는, 체화하기 쉬운 기교"를 느끼기도 했다. 아쉽게도 올해 초에 한국 순회공연을 기획했지만 코로나19로 인해 불발됐다. 그래도 '변덕스러운' 조진주는 그 변덕을 끊지 않을 것이다. 오히려 그 변덕이 '조진주스러움'과 '조진주다움'을 만든다. "20세기에 작곡된 곡들을 좋아하는데요. 기회가 된다면 이 곡들을 한데 담고 싶어요. 프로코피예프, 쇼스타코비치는 물론이고 스트라빈스키, 브리튼, 코른골드의 작품이죠."

2022년의 서울이 기대되는 이유

2022년 여름, 조진주는 바쁘다. 스스로 만든 바쁨이다. 그런 그에게 듣는 최근 관심사와 이야기는 늘 흥미롭다. 그녀는 멈추지 않으니까, 그렇게 늘 변하니까. 에세이집 책날개에 적힌 소개는 아마도 그런 그가 적었을 것이다.

"음악을 업으로 삼고 있는, 아홉 살 강아지 미소의 집사. 발리에서 한 달 살기를 꿈꾸는 등 자연과 함께하는 힙스터의 삶을 상상하지만 연습과 연주 때문에 실행하지 못한다. '쪼꼬렛'과 커피 그리고 일 벌이기 중독자이며 프랑스에 정착한 예술가들을 사랑한다. 유난스러운 사람들과 재밌게 살다가 삶의 끝에는 현악 4중주를 연주하고 싶다."

"1개월 이상 키우지 못하는데도 불구하고 최근에는 식물을 키우고 있다"고 한다. 읽고 쓰는 것도 좋아해 책도 부지런히 읽는다. 요즘에는 피에르 루이스의 소설을 읽고 있다고.

무엇보다 음악에 부지런히 신경 써야 한다. 7월 22일 대학로 극장 쿼드에서 올리는 공연이 끝나면, 10월에 다시 한국에 들러 성남에서 독주회를 치르고, 12월에는 서울문화재단의 지원(예술창작활동지원사업)을 받은 새로운 실험작도 선보여야 한다.

"서주리 작곡가와 함께하는 초연작입니다. 바이올린과 영상, 전자 음향이 함께해요. 새로운 것을 준비할 적에 내게 얼마만큼 도움이 될까 싶은 '계산'보다 '재미'를 기준으로 삼아요. 그리고 재밌겠다 싶으면 '미친 추진력'을 발휘하며 덤벼들죠. 대부분이 그러했어요. 따져보면 그것을 하게 된 최초 동기는 늘 '재미'였어요. 12월 예정 중인 공연도 이러한 마음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야기가 흐르다 보니 예술과 창작을 위한 공공지원금 이야기도 나누게 됐다. 한국과 세계 여러 곳을 넘나들며 연주, 교육, 페스티벌을 운영하고 있는 그에게 예술이란 영감의 산물 이전에 지원의 마중물을 만나야 하는 그 무엇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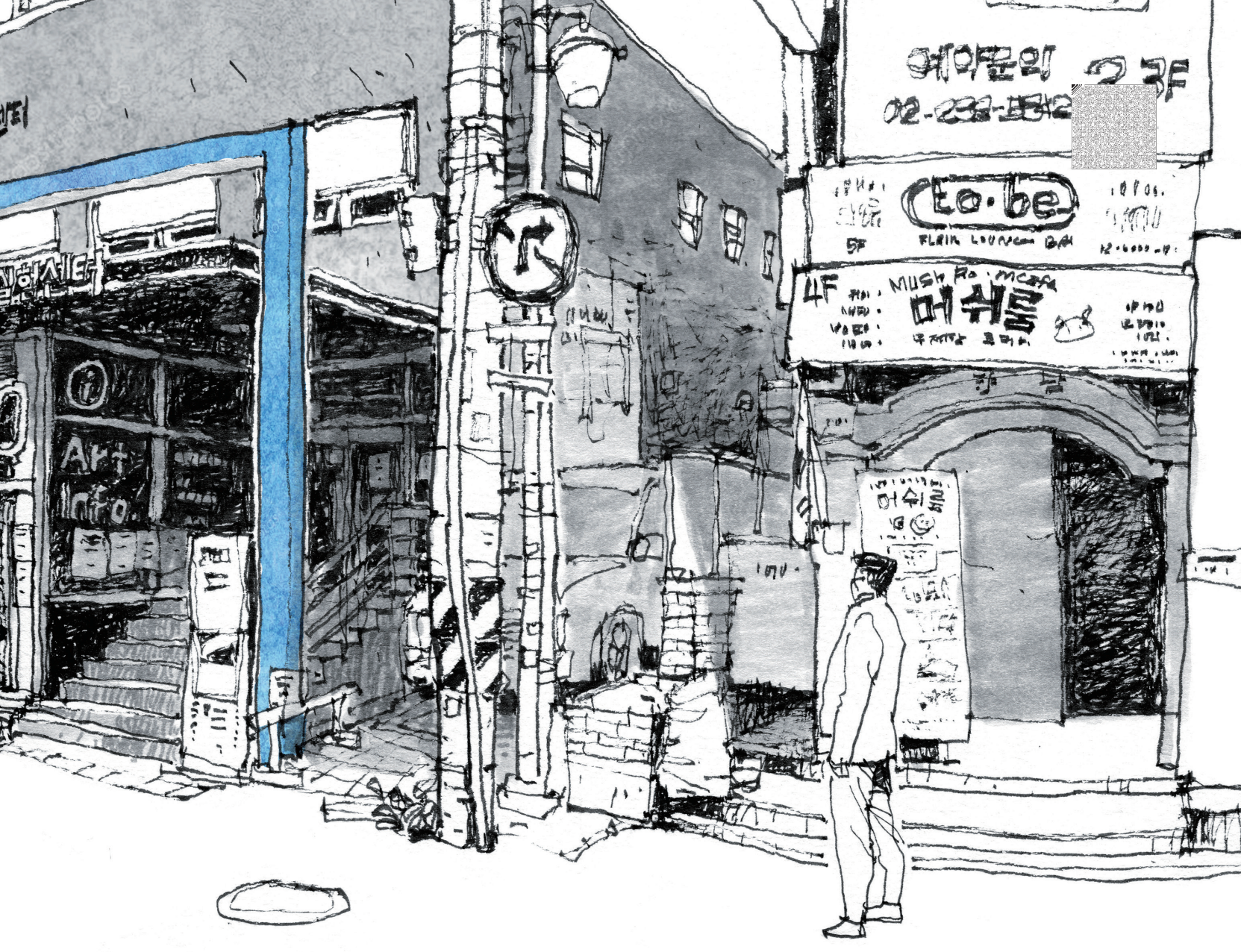
"미국은 예술가들이 공공기금을 지원받기가 어려워요. 하지만 캐나다는 공공지원금 제도가 발달해 젊은 예술가들이 자유롭게 작업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실 공공지원금으로 개인 작업을 할 수 있는 나라는 몇 곳 되지 않아요. 그중 한국이 있다는 게 자랑스럽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예술의 다양성과 실험을 위해 공공지원금의 존재는 무시할 수 없습니다. 이번에 서울문화재단의 쿼드도 자본의 부담에서 벗어나 다양한 실험을 할 수 있는 곳으로 자리 잡았으면 합니다. 한국에는 정말 창의적인 예술가가 많아요. 먼 훗날 이 공간에서 어떤 작품과 공간이 나올지 참 궁금해집니다. 예술이 폭포수처럼 쏟아져 나오는 곳이 되기를 바랍니다."

글 송현민_음악 평론가 | **사진 제공** 봄아트프로젝트

기찻길을 찾아 떠나는 여행, 서교동

서교예술실험센터

6월의 첫 번째 목요일 오전, 홍대입구역 7번 출구로 나와 나에게는 무척 익숙한 길로 들어선다. 한참 전 일이긴 하지만 예전에 활동하던 동호회의 연습실이 이 근처에 있던 관계로 나는 주말마다 주로 이 동네에서 놀았다. 주말의 홍대 앞은 지금은 믿어지지 않는 열기로 가득했다. 어울마당로를 따라 걷는 길은 10여 년 전에 비해 많이 변해 있었다.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고 하지만 홍대 앞 거리 풍경은 하루가 멀다 하고 바뀌는 느낌이다.



홍대 앞 문화예술 생태계를 연결하는 예술 플랫폼

오늘은 이 길을 따라 서교예술실험센터를 방문하는 날이다. 매달 첫 번째 목요일 오전 11시에 열리는 〈서울 스테이지11〉 공연을 보기 위해서다. 인디밴드의 성지와 같던 홍대의 장소성을 살린 음악 공연이 서교동의 서교예술실험센터 1층 예술다방에서 열린다. 오늘은 잭킹콩JACKINGCONG이라는 젊은 밴드의 공연이다. 트럼펫이 포함된 5인조 밴드의 공연을 보기 위해 일찍부터 수많은 사람이 서교예술실험센터 앞에 모여 있었다. 서교예술실험센터는 30년 동안 서교동사무소로 사용하던 공간을 고쳐 2009년부터 운영 중이며, 2013년부터는 민관 거버넌스 모델인 '공동운영단'을 중심으로 예술인과 서울문화재단이 함께 운영하고 있다. 서교예술실험센터는 홍대 앞 문화예술 생태계를 연결하는 예술 플랫폼으로 홍대 앞을 거점으로 활동하는 수많은 예술가를 대상으로 매년 새롭고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을 시도하고 있고, 전시·공연·상영회·토크콘서트·세미나 등이 열리는 공간을 제공한다. 1층에는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예술다방과 전시장이 있으며 지하 1층의 다목적공간과 2층의 세미나실 등으로 구성돼 있다.

젊음의 거리 홍대 앞, 지난밤의 열기와 환희가 종적을 감춘 자리에 텅 빈 거리와 아직 문을 열지 않은 가게 사이로 제법 눈부시게 달아오른 오전 햇살이 차오른다. 사람들로 꽉 들어찼을 밤의 시

간이 끝난 뒤 지나가는 사람이 드문드문 보이는 오전 시간은 홍대 거리의 또 다른 모습을 제대로 느껴볼 수 있는 시간이다. 상인들이 지난밤의 수고를 잊고 아직 휴식을 취하고 있을 시간에 홍대 앞을 걷는다. 홍대입구역 7번 출구에서 시작해 당인리발전소까지 1.5km가 조금 넘는 길은 오전이 좋다. 오후의 인파로 북적이는 활기 넘치는 길도 좋지만 오전의 한적한 길은 홍대 앞의 또 다른 분위기를 느낄 수 있다.

인디밴드로 상징되는 공연예술, 거리의 버스킹, 플리마켓에서 판매되는 각종 공예품이 떠오르는 홍대 거리의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면 지금은 상상하기도 힘든 기찻길의 추억을 만난다. 폐선이 된 옛 경의선 철길 자리에 들어선 경의선 숲길과 책거리뿐만 아니라 홍대입구역 7번 출구에서 시작되는 어울마당로가 원래 기차가 다니던 기찻길이었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다. 하지만 1970~1980년대부터 이 지역에 거주한 마을 주민이나 그 시절 홍대를 다닌 학생들은 아마도 기찻길에서 쌓은 각별했던 추억이 적어도 하나쯤은 있을 것이다.

기찻길이 사라진 자리에 들어선 문화 거리

한강변 당인리발전소는 1930년에 준공됐다. 지금은 서울화력발전소라고 부른다. 대한민국 최초의 화력발전소다. 그 화력발전소

에 필요한 무연탄을 공급하던 철도 노선이던 당인리선은 용산선의 지선으로 서강역에서 출발, 세교리역·방송소앞역·당인리역까지 4개 역 2.4km 구간이었다. 무연탄뿐만 아니라 여객 운송도 담당했던 당인리선은 당인리발전소가 석탄 대신 가스연료를 이용하면서 1980년 폐선됐다. 그 기찻길이 사라진 자리에 들어선 어울마당로는 '홍대 앞 걷고 싶은 거리' '홍대패션거리' '홍대예술의거리' '홍대축제거리'라는 이름으로 불리면서 홍대 앞을 대표하는 문화 거리가 됐다. 물론 나 같은 사람들에게는 '주차장길'이라는 이름이 더 익숙하다.

이 거리는 코로나19 팬데믹이 있기 전, 주말이면 무명의 뮤지션이 앰프와 기타 하나 들고 나와 노래하고 춤추는 거리였고, 사람들이 그 주변을 둘러싸고 젊고 예쁜 시간을 사진 속에 담는 거리였다. 홍대 정문으로 향하는 홍익로를 지나면 예전 철길을 따라 좁고 길게 형성된 독특한 형식의 건물이 200m 넘게 이어진다. 흔히 '서교365'라고 하는 이 건물은 과거 시장골목이라고 부르던 길과 지금은 주차장길로 부르는 어울마당로를 양쪽에 끼고 폭 2m에서 5m 정도의 좁고 긴 형상으로 홍대 앞 독특한 풍경을 이루고 있다.

한마디로 정의하기 힘든 복잡한 형상에는 홍대 앞 서교동 사람들의 온갖 시간이 덕지덕지 붙어 있는 것처럼 보인다. 과거 홍대 미대생과 건축학도의 작업실, 그들이 밥 먹고 술 마시던 선술집이 있던 이 좁고 긴 건물에 지금은 휴대전화 케이스, 액세서리, 예쁜 모자, 옷을 파는 가게와 인생의 비밀을 풀어줄 것 같은 타로 가게가 잔뜩 들어와 있다. 철길을 따라 1970년대에 형성된 이 건물은 한때 철거 위기에 놓이기도 했지만 마을 주민, 인근 상인, 건축가와 예술가 등의 노력으로 50년이라는 시간의 흔적이 켜켜이 쌓인 형태로 여전히 자리에 남아 있다.

경의선 책거리에서 시작한 산책은 최근 문화복합공간으로 재탄생한 당인리발전소로 향한다. 그리고 서교365 건물이 끝나는 지점에 '홍대 문화예술관광특구'라고 적힌 귀여운 캐릭터의 조형물이 기타를 들고 서 있다. 홍대 앞은 지난해 문화예술관광특구로 지정됐다. 이 조형물이 단순히 인스타그램 피드를 위한 포토존 역할로 끝나지 않고 진정한 문화와 예술의 거리로 거듭날 홍대 앞 상징이 되기를 바란다. 지난 2년간의 팬데믹으로 수많은 공연장과 뮤지션이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지만 여전히 홍대 앞은 수많은 인디 뮤지션의 고향과도 같은 곳이다. 당인리발전소는 지하로 들어가고 그 위에 마포새빛문화숲이라는 공원이 조성됐다. 목요일 오전의 어울마당로는 지난밤의 열기가 전혀 느껴지지 않을 만큼 조용했다.

글·그림 정연석 《서울을 걷다》 저자

당신과, 나와, 우리의 사랑을 응원합니다

뮤지컬 〈아이다〉와 〈마타하리〉

누군가 "당신이 생각하는 사랑은 무엇이냐"고 묻는다면, 뮤지컬 〈아이다〉의 아이다와 〈마타하리〉의 마타하리에게 있다고 말하겠다. 그들은 자신이 자신일 수 있도록 인정해 준 누군가를 만나 밀도 높은 사랑을 받았다. 그들이 주어진 운명에 얽매이지 않고 주체적 결정으로 삶을 바꿔 나가게 만든 것도 사랑이었다. 두 여인의 다소 비극적 말로末路를 지독한 사랑의 안타까운 결과물이라고 치부하지는 말자. 전쟁은 잔인하고 시대는 가혹했지만 사랑은 존재만으로도 위로가 됐으니까.

당신의 사랑으로 '나'로 우뚝 설 수 있었죠

〈아이다〉 | 5.10~8.7 | 블루스퀘어 신한카드홀

〈아이다〉는 이집트가 인근의 모든 국가를 정복한 뒤 갈등이 있던 시절, 혼란기에 펼쳐진 운명적이고 신화적인 사랑 이야기를 담는다. 노예로 끌려온 누비아 공주 아이다와 이집트 파라오의 딸 암네리스, 두 여인에게 동시에 사랑받은 장군 라다메스의 엇갈린 사랑과 우정은 관객에게 애틋하게 다가온다.

이 공연은 아이다와 암네리스의 성장담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적국의 노예가 돼 수용소에 갇힌 아이다는 누비아인을 이끄는 지도자로 우뚝 선다. 철부지 공주 암네리스는 피비린내 나는 전쟁을 끝내는, 결단력 있고 단단한 공주로 거듭난다. 이 모든 과정에는 사랑이 있었다. 아이다를 향한 라다메스의 사랑, 라다메스를 향한 암네리스의 순정은 서로에게 행동의 지지대가 된다. 저마다의 사랑 방식은 공연이 끝난 후에도 한참 동안 잊히지 않는다. 특히 라다메스와 아이다는 때로는 친구처럼, 때로는 연인처럼 서로 힘이 됐다. 숭고한 사랑의 또 다른 방식이다.

관객은 지금 〈아이다〉를 보낼 준비를 하고 있다. 이번 시즌이 끝나면 〈아이다〉와 작별 인사를 해야 한다. 현재 블루스퀘어 신한카드홀에서 공연하고 있는 브로드웨이 오리지널 버전의 〈아이다〉를 볼 수 있는 것은 오는 8월 7일까지다. 앞서 〈아이다〉는 2019~2020년 그랜드 피날레를 준비한 바 있다. 오리지널 판권을 가진 디즈니 시어트리컬 프로덕션이 2020년 3월 부산 공연을 마지막으로 계획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코로나19 팬데믹으로 부산 공연이 중단됐다. 이에 제작사인 신시컴퍼니와 디즈니는 한 번 더 관객을 만나 제대로 된 마무리를 하기로 뜻을 모았다. 그 기한이 8월 7일까지이니 〈아이다〉를 보고 싶은 사람은 참조하자.

〈아이다〉는 뮤지컬 〈미녀와 야수〉 〈라이온 킹〉처럼 애니메이션을 원작으로 하지 않은, 디즈니가 오로지 뮤지컬만을 위해 만든 최초의 작품이다. 1998년 애틀란타 공연을 시작으로 시카고까지 긴 여정을 거친 후 완성도 높은 뮤지컬로 거듭나 2000년 2월부터 프리뷰 기간을 거쳐 3월 브로드웨이 팰리스 극장에서 막이 올랐다.

초연되던 해 〈아이다〉는 토니상 작곡상·무대디자인상·조명디자인상·여우주연상 등 4개 부문을 따내고 그래미상에서는 베스트 뮤지컬 앨범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국내에서는 2005년 초연된 이래 다섯 시즌 동안 모두 856회 공연으로 누적 관객 약 92만 명을 모았다.

〈아이다〉로 사랑을 받았던 배우, 〈아이다〉와 새롭게 만난 배우의 조화도 눈길을 끈다. 윤공주·전나영·김수하는 아이다 역을, 김우형·최재림은 라다메스 장군 역을 맡았다. 암네리스 역에는 아이비·민경아가 캐스팅됐다. 그중 아이다 역에 김수하와 암네리스 역에 민경아가 새롭게 합류했다. 두 배우는 처음이자 브로드웨이 오리지널 버전의 마지막으로 지금의 〈아이다〉에서 주인공으로 분한다.

1 뮤지컬 <아이다>의 아이다 역을 맡은 윤공주
2 뮤지컬 <마타하리> 중 '춤을 시작해' 넘버의 한 장면

잊힌 나, 잊었던 나, 모두 '나'였다

〈마타하리〉 | 5.28~8.15 | 샤롯데씨어터

뮤지컬 〈마타하리〉는 제1차 세계대전 당시 이중 스파이 혐의로 프랑스 당국에 체포돼 총살당한 무희舞姬 마타하리의 실화를 바탕으로 탄생했다. 그녀가 프랑스와 독일의 이중 첩자로 낙인찍혀 죽음을 앞두게 됐지만 안대도 거부한 채 덤덤하게 최후를 맞이했다는 일화는 지금까지도 회자된다.

마타하리의 본명은 마가레타 거트루이다 젤러. 네덜란드 출신의 버림받은 소녀다. 남편의 성적 학대를 피해 무작정 파리로 도망쳐 온 그녀는 우연히 길거리에서 만난 안나의 따뜻한 보살핌을 받으며 새로운 삶을 시작한다. 순수한 영혼을 지닌 프랑스군 소속 파일럿 아르망의 사랑은 마가레타와 마타하리 모두의 정체성이 회복될 수 있는 치유제로 작용한다.

누가 인생은 아름답다고 했는가. 마타하리의 생은 결코 순탄하게 흘러가지 않는다. 매혹적인 외모와 춤 실력 덕분에 돈과 명예를 모두 얻었지만 제1차 세계대전이 일어나며 변화가 찾아온다. 나이가 들며 인기는 점점 시들해지는 가운데 프랑스 정보국 라두 대령의 질투와 이중 스파이 제안은 그녀를 운명의 소용돌이로 밀어 넣는다.

그녀에 대해 돈과 명예만 좇은 악녀라는 평가도 있지만 5월 28일 개막한 작품 속 마타하리는 사랑 앞에서는 누구보다 솔직하고 모든 것을 내놓는 순수한 용기를 지닌 여성으로 그려진다. 삼연에서는 초연과 재연에서 보여준 '이중 첩자 마타하리'에 인간미가 네 스푼, 아니 네 국자 정도 가미됐다.

이번 시즌에서는 마가레타라는 인물도 무대 위에 오른다. 마타하리의 본명을 따서 만든 캐릭터인데 마타하리 내면의 자아를 상징한다. 몸짓을 통해 새롭게 등장하는 마가레타는 대사 없이 오직 춤만 춘다. 잊힌, 잊고 싶었던 마타하리의 과거를 상기시키는 역할을 한다. 마타하리의 사랑이 충만할 때 마가레타의 움직임에도 중심이 잡힌다.

작사가 잭 머피는 이 작품에 대해 "사랑에 대한 이야기"라며 "설명하기 쉽지 않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 사랑이 우리를 어떻게 변화시키는지에 대한 이야기"라고 했다. 진정한 사랑을 만나 비로소 자신의 모든 모습을 인정할 수 있게 된 마타하리의 서사가 명쾌하게 설명된다.

2016년 초연, 2018년 재연에 참여한 옥주현이 삼연에서도 마타하리 역을 맡았다. 그룹 마마무의 솔라도 마타하리 역에 도전한다. 아르망 역은 김성식·이홍기·이창섭·윤소호, 라두 대령 역은 최민철·김바울, 안나 역은 한지연·최나래가 맡았다. 샤롯데씨어터에서 8월 15일까지 공연한다.

글 김소희_《뉴시스》 기자 | **사진 제공** 신시컴퍼니, EMK뮤지컬컴퍼니

언젠가가 아닌 바로 지금 해야 하는 이야기

책《내 여자친구와 여자 친구들》과《칵테일, 러브, 좀비》

지난 6월 '2022 서울국제도서전'이 닷새 동안 열렸다. 코로나19로 인해 거듭 연기·축소되다 3년 만에 본격적으로 돌아온 행사다. 도서전을 주최한 대한출판문화협회는 관람객을 10만 명으로 추산했다. 그만큼 연일 사람들이 가득해 출판계 불황이라는 말이 무색하게 느껴졌다. 행사장을 메운 인파 외에 도서전에서 가장 눈에 띄는 점은 큐레이션과 부대 행사다. 주최 측이 마련한 전시·북토크·강연부터 출판사가 직접 관여하는 매대·공간 구성까지, 서울국제도서전은 올해 출판계가 주목하는 이슈가 무엇인지 살펴볼 수 있는 기회다. 동시에 동시대 독자들이 무얼 요구하는지 한눈에 파악할 수 있는 장이기도 하다. 출판산업 역시 소비자인 독자의 욕구를 기민하게 포착하고 반영하기 때문이다. 2022년 서울국제도서전에서 만난, '언젠가가 아닌 지금 이곳에서 해야 할 이야기'가 무엇인지 가늠할 수 있는 책 두 권을 소개한다.

나로 온전하게 존재하기

《내 여자친구와 여자 친구들》 | 조우리 지음 | 문학동네

"우리의 삶과 긴밀하게 이어져 있는 동물과 퀴어, 장애, 정치 등의 키워드에 관한 이슈를 들여다보고 함께 사유해 보는 시간을 가져봅니다."

'2022 서울국제도서전'의 작가 프로그램 중 하나인 '시대의 문학'을 설명하는 글이다. 언급된 네 가지 키워드(동물·퀴어·장애·정치)는 언뜻 다른 영역 같지만 사실 하나의 주제를 관통한다. 바로 '공존'이다. 다양한 사회 구성원이, 혹은 생태계 구성원이 서로를 배척하지 않고 공존하려면 어떤 태도를 지녀야 할까.

《내 여자친구와 여자 친구들》은 현재를 살아가며 일하는 (퀴어) 여성들의 관계를 다룬 소설집이다. 퀴어, 노동, 여성에 대한 확고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조우리 작가가 써낸 8편의 작품이 수록됐다. 《내 여자친구와 여자 친구들》 속 등장인물들은 비정규직으로 일하며 직장 상사와 고객에게 치이고, 이주민이라는 이유로 무시당하고, 레즈비언이기 때문에 가장 친한 친구들 사이에서도 불필요한 무례함을 겪어야 한다. 이들은 지금 서 있는 자리에 계속 발붙이고 살기 위해 끊임없이 존재 가치를 증명하고 설명해야 한다. 놀랍도록 현실과 닮아 있어 갑갑하지만 소설 한 편이 끝날 때마다 피로하기는커녕 마음이 놓인다. 고맙게도 이들은 자신의 정체성을 이유로 물러서지 않기 때문이다.

"어디서든, 너도 꼭 너를 지켜. 그게 우리를 지키는 일이 될 거야." 책에 수록된 단편 <미션>에서 주인공이 친구에게, 그리고 스스로에게 되뇌이는 말이다. 우리에게 당면한 '공존'이라는 시대적 고민에 대한 해답을 얻고자 한다면, 이 구절에서 조우리 작가가 주는 단서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주변에서 중심으로, 장르문학

《칵테일, 러브, 좀비》 | 조예은 지음 | 안전가옥

김초엽·천선란·정세랑 등 요즘 '핫'하다는 작가들의 공통점 중 하나는 장르문학을 다룬다는 것이다. 장르문학은 대중적이면서 원형이 되는 서사 구조가 있는 문학을 가리킨다. 대표적으로 SF·스릴러·판타지 등이 해당한다. 과거에는 순수문학에 비해 다소 소외돼 왔으나 최근 장르문학은 젊은 애독자 층을 탄탄히 형성해 가고 있다.

《칵테일, 러브, 좀비》는 장르문학의 계보를 잇는 조예은 작가의 단편집이다. 귀신, 좀비, 타임 리프 등 다양한 소재를 다뤘고 장르적으로는 미스터리 스릴러에서 호러, 로맨스까지 만나볼 수 있다. 여기까지만 해도 충분히 '재미가 없을 수 없는' 조합인데 작가는 한발 더 나아가 현시대의 사회문제까지 정교하게 엮어낸다. 이를테면 가스라이팅을 눈에 보이지 않는 가시가 커지는 것으로 형상화하고, 가정폭력의 시작과 끝을 타임 패러독스로 설명하는 식이다. 책에 수록된 <습지의 사랑>에서 산림 재개발은 사람들을 위협하는 재앙으로 되돌아오기도 하지만 귀신들의 사랑을 완성하는 장치가 되기도 한다.

《칵테일, 러브, 좀비》는 '2022 서울국제도서전' 기념 리커버 도서로 최근 다시 출간됐다. 책을 펴낸 안전가옥은 대형 출판사가 아님에도 도서전이 열리는 동안 부스를 찾는 관람객의 발길이 끊이지 않았다. 눈을 사로잡는 공간 구성 외에 큰 몫을 한 건 판매 직원들의 영업력이다. 퍼스널 쇼퍼처럼 관람객 한명 한명에게 어울리는 책, 도전해볼 법한 책을 추천해 주는 모습이 인상적이었다. 《칵테일, 러브, 좀비》를 비롯한 장르문학이 인기를 끄는 이유도 다르지 않을 것이다. 매력적인 포장 안에는 크리처물, 사회 고발, 풋풋한 로맨스까지 다양한 취향의 독자를 포용하는 이야기가 알차게 준비돼 있다.

글 연재인_서울문화재단 홍보IT팀 | **사진 제공** 문학동네, 안전가옥

칠월
살살맞다는
서울도
이맘때면
천지사방
초록으로
자리를 깔고

모든 꿈들이
우워 햇살
맞으니
탱글탱글
영그는 소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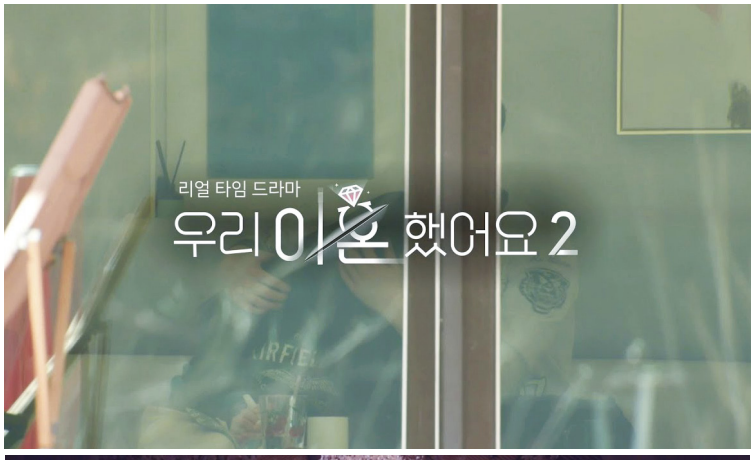
청와대 녹지원: 청와대 경내에서 가장 아름다운 곳이자 역대 대통령의 기념 식수 장소다. 조선 시대에는 경복궁 후원으로 문·무의 과거장으로 이용되기도 했다. 수령 310여 년, 높이 16m에 이르는 녹지원을 상징하는 소나무인 한국산 반송(盤松)이 압도적이다.

글·사진 김영호 서울문화재단 극장운영단장

※ 서울 찰나의 본문의 서체는 박상원 서울문화재단 이사장의 필체를 본떠 만든 '박상원체'를 사용했습니다.

'이혼'이라는 말초적 예능

TV조선 〈우리 이혼했어요2〉와 TVING 〈결혼과 이혼 사이〉



이혼한 지 10년이 넘은 부부가 오랜만에 만나 3박 4일 한 공간에 머문다. 이혼 직전에는 서로 입만 열면 싸우게 되니 대화를 회피했고, 긴 별거 후 서류에 도장을 찍었기에 단둘이 보내는 시간은 10여 년 만이다. 따로 산 사이 훌쩍 늙어버린 서로를 어색해하던 두 사람은 눈조차 마주치지 못한다. 또 다른 커플은 결혼 생활을 방송에서 오픈하며 리얼 예능 프로그램에 출연한 바가 있다. 결혼 예능 프로그램에서도 두 사람은 자주 투닥거렸고, 주로 남편이 철없는 캐릭터로 화제 몰이를 했다. 얼마 후 두 사람은 이혼했고, 서로를 비난하는 인터뷰를 하며 또 한 번 뉴스에 이름이 오르내렸다.

방송에서 '우리가 이혼한 이유'를 고백하다

여러 남녀가 출연해 연애 상대를 찾는 연애 매칭 프로그램이나 결혼 생활을 보여주는 리얼 버라이어티에 이어 이제는 이혼한 부부가 함께 방송에 출연해 감췄던 가족사까지 공개한다. 물론 그 과정에는 첫 만남 즉시 부부 싸움을 하는 모습까지 생중계된다. 감정의 둑이 터지듯 한쪽이 오열하고 소리를 지르는 예고편이 방송 전에 공개된다. 앞에 나열한 예는 이혼 방송의 장을 연 TV조선 〈우리 이혼했어요2〉에 출연 중인 나한일-유혜영 커플, 일라이-지연수 커플의 모습이다. 아이돌의 가상 연애를 보여주던 〈우리 결혼했어요〉가 아닌, 진짜 과거의 부부가 출연해 '우리가 이혼한 이유'를 고백하는 예능 프로그램이라니. 이들은 각자의 사정으로 이혼했고 연락도 끊은 채 남남으로 살다가 방송을 통해 조우한다. 〈우리 이혼했어요〉는 시즌1에 이영하-선우은숙, 이하늘-박유선, 최고기-유깻잎 등의 커플이 출연해 화제가 됐고 높은 시청률을 기록했다. 섭외만 가능하다면 방송국 입장에서는 시즌2를 이어가지 않을 이유가 없다. 유명인인 이혼한 부부가 이러한 방송에 출연 결정을 한 이유는 무엇일까? 출연자들은 "고민 끝에 나온 이유는, 당신과 제대로 대화를 해보고 싶어서"라고 고백한다.

이혼한 연예인 부부가 함께 방송에 출연한다는 화제성을 넘어 이혼 프로그램은 그간 인터넷 게시판에서 흔하게 보아왔던 한국 사회 속 가족 문제를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고부갈등, 경제적 난관, 육아나 가사 분배, 대화 단절과 폭언, 불륜 등이 이혼 사유로 어렴풋이 제시된다. 최근 방영한 방송 역시 마찬가지다. MBC 〈오은영 리포트-결혼지옥〉에서는 오은영 박사라는 정신건강의학 전문가를 섭외해 부부 문제를 심리상담의 영역으로 끌고 와 오은영 박사가 '부부 싸움 영상'을 '아동 치료 영상'을 보듯 관찰한 후 해결책을 제시한다. 어느 정도까지가 실제 부부의 생활인지 시청자는 알 도리가 없지만 여기에도 연예인 부부가 출연한다.

타인의 편집된 불행과 울분을 소비하다

'이혼'이라는 소재를 더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방송은 티빙 오리지널 〈결혼과 이혼 사이〉다. 여기에는 네 커플이 출연한다. 여자는 여자끼리, 남자는 남자끼리 와인바에 모여 이야기하는 형식으로 부부 문제를 본인 입장에서 수다 떨 듯 털어놓는다. 앞서 소개한 부부에 비해 출연자 부부가 젊은 만큼 부부 싸움도 격렬하다. 그리고 그러한 영상이 보기 불편할 정도로 가감 없이 공개된다. 육아로 지친 아내에게 폭언을 퍼붓는 남편의 모습이나, 분노조절 장애 판정을 받을 정도로 감정 조절을 하지 못하는 남편이 아내에게 위협적으로 욕설을 내뱉는 영상을 편집 없이 보여준다. 연애 매칭 방송이 간질간질하고 달콤한 연애 감정을 시청자 가슴에 재현한다면, 이혼 프로그램은 불화가 심각한 집에서 엄마, 아빠의 거친 전쟁을 지켜보다 불안한 눈빛으로 냅다 울어버리는 아이의 자리로 시청자를 데려다 놓는다. 사실 이 모든 방송을 통틀어 젊은 여성 사이에서 부르는 또 하나의 닉네임이 있다. '본격 비혼 장려 방송'이라는 것이다. 부부 관계에서 한쪽만의 무조건적 잘못은 없겠지만 여성 시청자가 아내에게 감정을 이입할 수밖에 없는, 속 터지는 순간이 종종 연출되곤 한다. '아내에게 어떻게 저런 말을 하지?' 싶을 정도로 심각한 욕설을 퍼붓는 남편, 육아와 가사에 전혀 참여하지 않는 남편, 가계에 보탬은 주지 않으면서 아내 카드로 명품 신발을 결제하는 남편 등. 아마도 방송을 위한 자극적 연출이 있겠지만 비혼의 여성 시청자는 '역시 결혼은 위험'하다고 생각하게 된다.

터놓고 대화하면서 오해를 풀거나 재결합의 뉘앙스를 풍기는 등의 훈훈한 장면도 물론 가끔 관찰된다. 하지만 이러한 방송은 출연자의 감정을 말초적으로 자극하고, 부부 싸움 영상은 짧게 편집돼 유튜브나 SNS에 공유되며 또 다른 오해를 낳는다. 연예 뉴스 제목은 조회수 장사를 위해 누군가를 악당으로 몰아가고, 악플은 이들에게 또 다른 상처로 남는다. 출연자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송에 나와 상처를 극복함으로써 얻는 것도 있을 테다. 그러나 결국 방송국은 시청률을 얻고 시청자들은 편집된 남의 불행과 울분을 관음하고 소비한다. 어디까지가 진실이고 어디까지가 연출인지 중요하지도 않다. 오히려 '리얼'을 표방하는 방송에서 대본이 있다면 '조작'이라며 더 큰 논란이 된다. 연예인 집 거실까지 들어갔던 카메라는 이제 그들의 비밀스러운 과거, 부부 싸움, 마음속 상처까지 낱낱이 클로즈업한다. 이조차 자극이 시들해지면 방송국 카메라가 진출하게 될 다음 영토는 어디가 될까?

글 김송희_《빅이슈코리아》 편집장, 《희망을 버려 그리고 힘내》 저자, 칼럼니스트 | **사진 제공** TV조선, TVING

나를 망쳐서라도 기꺼이 살아보겠다

이우정 감독의 <최선의 삶>

<최선의 삶>(2021)

감독 이우정
출연 방민아(강이), 한성민(소영), 심달기(아람)

커다란 날갯짓으로 자신의 존재를 알리는 새들 사이에서 하루살이는 더 높이, 더 멀리 날고 싶다고 한 적이 없다. 촐랑거리는 작은 몸으로 살아도, 눈에 띄지 않는 무더기로 살아도 상관없다. 그런데 사람들은 하루살이가 고민도, 질문도 없이 그저 대충 휘뚜루마뚜루 사는 것 같다고 한다. 뭘 모르고 하는 소리다. 죽어야 끝나는 날갯짓을 멈추고 좀 쉬었으면 좋겠다. 그냥 오늘도 살아남았으니 내일 하루도 좀, 그냥 좀 살면 안 되나?

나를 망쳐 사는 삶

열여덟 살 강이(방민아), 아람(심달기), 소영(한성민)은 단짝이지만 자라온 환경도, 꿈도, 성격도 다르다. 각각의 이유로 슬픈 세 친구는 지금 사는 곳이 아닌 다른 곳으로 달아나고 싶다. 그래서 무작정 대전을 떠나 서울로 가출한다. 모텔과 길거리를 전전하다가 겨우 구한 지하방에서 쉬어가는 것 같지만 가출 생활은 금세 끝나고 세 사람 사이에는 균열이 가기 시작한다.

이우정 감독의 영화 〈최선의 삶〉은 문학동네 대학소설상을 수상한 임솔아 작가의 동명 소설을 원작으로 한다. 원작은 자신을 망쳐서라도 하루를 안간힘을 써서 겨우 살아내고 또 내일을 살아보려는 소녀들의 잔인한 현실을 그리고 있다. 영화는 원작을 뛰어넘거나 달아나려는 대신 소설에서 따끔거리는 빛과 서늘한 그늘을 가져온다.

'불쌍한 것들에 마음을 주어 자라나는 슬픔을 잘라내는' 자신을 학대해서 현실을 극복하는 아람, 자신의 상처가 들킬까 봐 친구를 대신 공격하는 소영, 자신을 증명하기 위해 기꺼이 자신도 망치고 누군가를 다치게 만드는 강이의 캐릭터는 원작 그대로다. 끝내 성장하지 못하는 소녀들의 이야기는 원작의 대사와 정서에 힘입어 동그란 공감대를 형성한다.

하지만 폭력의 묘사가 구체적이고 주인공의 마음이 무척 또렷했던 원작과 달리 영화는 영상으로 마주하기 버거울 것 같은 장면들을 과감하게 공백으로 만들어버린다. 그런 서사의 틈 때문에 어떤 이야기와 이야기 사이의 필름이 잘려 나간 것이 아닌가 싶은 순간들이 있다.

삶을 망쳐 얻은 나

영화 〈최선의 삶〉에서 과거는 풍경이 아니라 우리가 지금도 겪고 있는 현실 위에 있다. 그래서 영화 속 과거는 기대와 달리 복고의 낭만적 정서를 만들지는 않는다. 〈메기〉 〈수성못〉 등 인상적인 다양성 영화에서 주변부의 인물을 관찰하는 시선을 잘 보여준 이재우 촬영감독은 핸드헬드 카메라로 아이들의 잔망스러운 날갯짓과 떨림을 포착한다.

상처 입은 아이들은 본능적으로 알고 있다. 결국 자기들은 어떻게든 살아남으리라는 것을. 그래서 마음의 상처를 기억하지 않으려고 자꾸 몸을 상하게 한다. 결국 아이들의 마음은 세상을 향해 던져봤지만 허공에 머무르기보다는 바닥에 질질 끌리는 시간이 더 많은 셔틀콕처럼 너덜너덜해지고 만다.

세 친구는 떠돌다 자기들만의 공간을 찾았지만 좁디좁은 공간에 갇혀 조금도 자유롭지 않다. 기껏 달아나 보려 하지만 결국 제자리로 돌아오고야 마는 부메랑처럼, 내가 태어난 그 처지에 단단하게 붙박인 운명은 불행이라는 기둥에 묶여 있기 때문이다.

맞닿아 함께 자라는 대신, 혼자라도 살아남겠다는 아이들의 선택은 사실 뚜렷한 희망이 없는 우리 현실과 같아 아프다. 나를 망치고, 너를 다치게 해서라도 나는 오늘을 살겠다는 아이들이 마구 긁은 손톱자국은 생채기가 되어 계속 따끔거린다.

"떠나거나 버려지거나 망가뜨리거나 망가지거나 더 나아지기 위해서 우리는 기꺼이 더 나빠졌다. 그게 우리의 최선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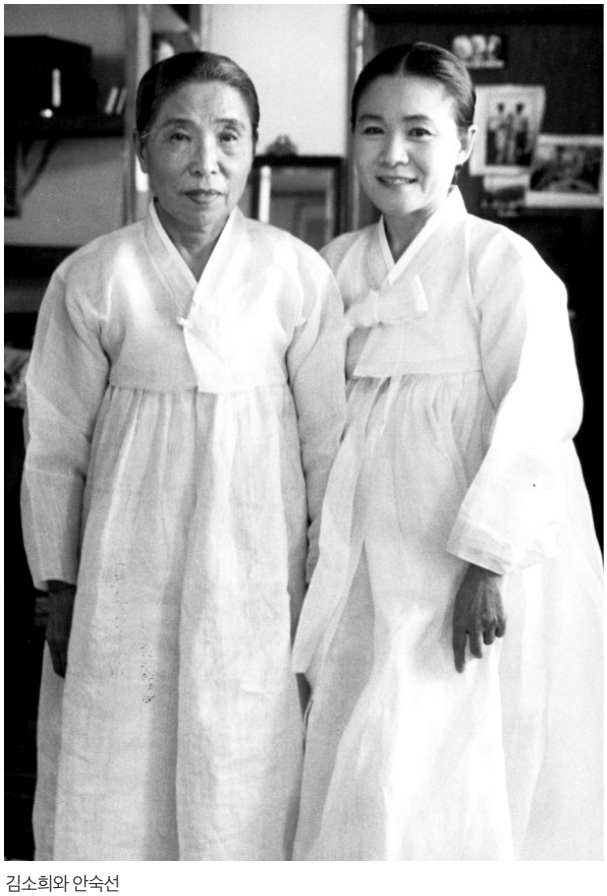
원작에서 가장 인상적인 이 문구의 의미와 정서를 영상 속에 제대로 녹여 넣기 위해 영화는 계속 가쁘게 오르막길을 오르고 또 오른다. 그 속에서 채도가 낮고 희미한 주인공 강이의 시간은 정상에 가닿아 볼 의욕도, 의지도 없이 뚝, 저 혼자 멈춘다.

글 최재훈_영화감독이 만들어낸 영상 언어를 지면 위에 또박또박 풀어내는 일이 가장 행복한 영화평론가. 현재 서울문화재단에서 근무하며 각종 매체에 영화평론과 칼럼을 연재하고 있다. 저서로 《나는 아팠고, 어른들은 나빴다》 등이 있다.

아름다운 여걸 로비스트

김소희와 박귀희

1955년 7월 29일 밤 11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난장판이었다. 막바지에 이르러 예산을 뜯어 맞추는 데 정신이 없었던 이충환 의원이 참다못해 크게 소리쳤다. "박귀희, 김소희가 하는 국악원 예산까지 깎지 말라니 나는 어떻게 하란 말이야."



김소희와 안숙선

국악계의 호프

1955년 4월, 한국민속예술학원(돈암동 142번지)이 설립된다. 첫해에 100여 명의 원생으로 출발했다. 같은 해 11월 2일부터 12월 1일까지 사흘간 주야로 시공관(현 명동예술극장)에서 '한국민속예술학원 창립기념발표회'를 개최했다. '여성국악동호회' 주최였다. 김소희가 이사장, 박귀희가 상무이사였다. 과거 '여성국극'의 주역이 뭉쳐서 만든 학교였다. 박귀희와 김소희라는 두 여걸은 나랏돈에 사재를 합쳐 학교를 설립해 학생을 길러냈는데 이것이 지금 국립전통예술고등학교의 시작이었다. 이승만 정권하에서 당시 김소희와 박귀희 두 사람은 '국악계의 호프hope'로 통했다. 특히 이승만 전 대통령이 총애한 예인이었다.

김소희와 박귀희, 두 사람은 언제부터 커플로 등장을 했을까? 〈햇님과 달님〉이 시작이다. 1949년 2월 10일, 여성국극의 〈햇님과 달님〉 공연이 크게 인기를 얻었다. '민족오페라'란 이름을 내걸었고 단박에 최고의 흥행물로 자리한다. '햇님' 박귀희와 '달님' 김소희의 인기는 대단했다.

일제강점기 전후, 두 사람의 행보는 같은 듯 다르다. 만정 김소희 명창의 광복 이전 활동은 분명하다. 조선권번朝鮮券番, 조권 소속의 예인으로 경성방송국에 자주 출연하고 유성기 음반 녹음에 빠지지 않는 스타였다.

향사 박귀희의 광복 이전 활동은 잘 알려지지 않았다. 그러다가 광복 이후 민간의 민속악인을 중심으로 국악원(대한국악원)이 창립되고, '국극사'라는 창극 공연 단체를 운영하게 되는데, 이때 박귀희가 여성으로서 남성 역할을 맡으면서 급부상한다. 여성국극이라는 장르가 정착하기 전부터 이미 박귀희는 남성 역할로 인기를 끌었다. 박귀희가 이몽룡을 맡는 날이면 극장에 유독 관객이 넘쳐났다. 당시 국극사 공연을 보면 작곡가 박영근은 "특히 박귀희 양의 남역男役은 그 가진 바 '알토'의 음성이 아름다워 당야當夜의 인기를 집중했다"는 글을 남긴 바 있다.(1946.10.20.《경향신문》)

명절이면 점심을 두 끼 먹어야 했던 안숙선 명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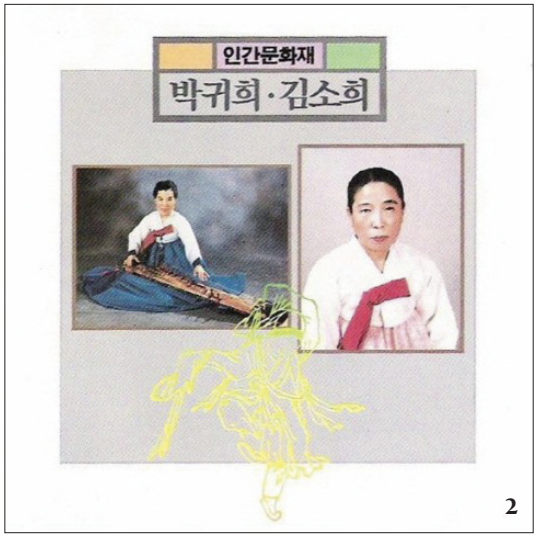
김소희는 1964년 판소리로 인간문화재가 됐고, 박귀희는 1968년 가야금병창으로 인간문화재가 됐다. 이때부터 두 사람이 함께 공연하는 일은 점차 드물어졌다. 각자 제자를 길러냈다. 이후 두 명인의 예술적 행보는 조금 달랐다. 김소희가 공연 중심이었다면, 박귀희는 교육 중심이었다. 김소희는 1972년 미국 카네기홀 공연을 비롯해 국내외에서 판소리와 창극에 치중했다. 박귀희는 일본에도 '한국무악원'을 두면서 제자들을 길러냈다. 특히 국악예술학교를 발전시키는 데 더 적극적인 역할을 했다.

1980년대에 들어서 김소희에게는 근심이 늘어갔다. 1984년 4월 7일 밤, 당시 서울 중구 화동 김소희 선생의 자택에서 큰 굿이 벌어졌다. 선생이 자청해서 굿판을 연 것이며 진도 출신의 애제자 신영희가 도왔다. 김석출 일행 여섯 명이 밤새 굿판을 벌였다. 몇 해 전 제자 안향연1944~1981.12.20을 떠나보낸 것도 안타까웠는데, 또 한 명의 제자 김동애1948~1984.2.29가 세상을 떠난 것이다. 안향연, 김동애, 신영희는 김소희 명창이 세 자매처럼 특히 아끼는 애제자였다.

이즈음 국악계의 스타 한 명이 크게 부각된다. 바로 안숙선이다. 판소리에도, 가야금병창에도 모두 출중했던 안숙선은 두 명의 인간문화재가 서로 자신의 문하에서 큰 역할을 해주길 기대했다. 안숙선은 명절이면 고민했다. 김소희 명창 댁에서도, 박귀희 명창 댁에서도 함께 식사를 해야만 했다.

안숙선 명창은 지금도 기억하고 있다. 김소희 명창 댁을 방문한 이후 박귀희 명인이 계신 운당여관을 방문했는데 스승이 자신을 반갑게 맞이하면서 부엌을 향해 크게 외치는 소리가 들렸다. "숙선이 왔다. 겸상 차려라." 제자 안숙선은 이날 두 끼의 점심을 먹어야 했다. 박귀희 명창은 생전 스스로 국악인 중에서 자신이 제자복弟子福이 가장 많다고 자랑했다.

1993년 7월 14일 박귀희 명창이 세상을 떠났고, 1995년 4월 17일 김소희 명창이 이승을 하직했다. 두 사람은 평생 국악을 위해 살았다. 국악인의 권익을 위해서라면 물불 가리지 않았던 아름다운 로비스트였다. 박귀희 명창은 말년에 평생 모은 재산을 국악교육을 위해서 써 달라고 하면서 국악예술학교에 기부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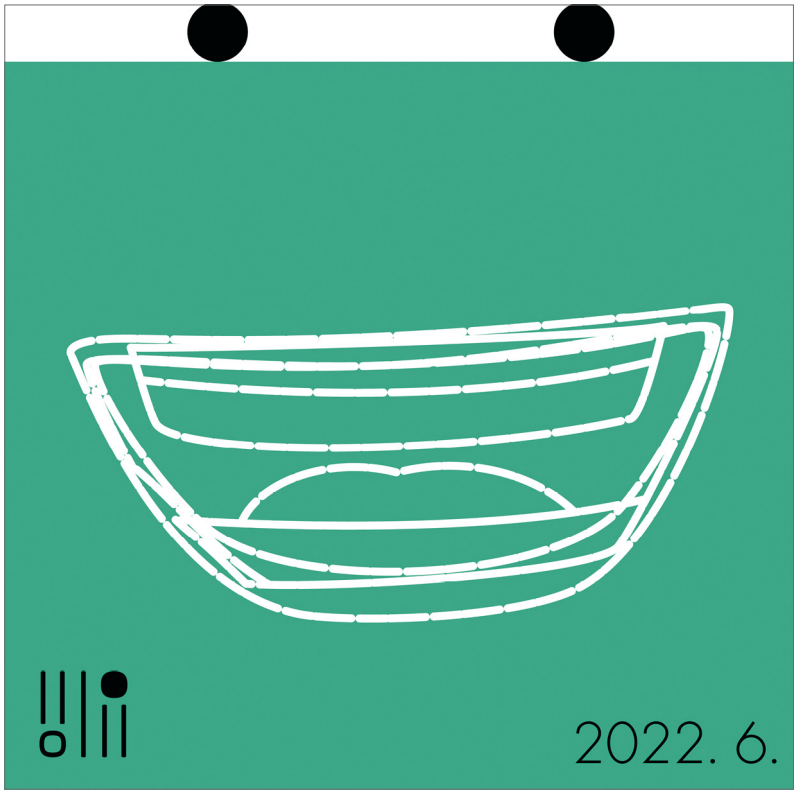


1 가야금병창의 명인 박귀희
2 박귀희·김소희 음반

1992년 국악예술학교는 금천구 시흥 2동으로 이사했다. 박귀희 명창은 생전 넓은 부지의 학교에서 학생들이 운동장에서 뛰노는 모습을 보는 것이 소원이었다. 그리고 30년의 세월이 흘렀다. 지금도 그곳(국립전통예술고등학교)에서는 많은 학생이 국악의 꿈을 키우면서 자라나고 있다. 두 명창은 돌아가셨으나 제자와 후학의 마음에는 영원히 남아 있다.

글 윤중강_국악 평론가 | **사진 제공** 윤중강

시인의 소설



웹진 [비유] 54호 포스터

웹진 [비유] 54호 <쓰다>에는 시인이 쓴 소설 두 편이 실렸다. 문보영 시인의 〈베케트의 밧줄 가게〉와 김현 시인의 〈수월〉이다. 이미 산문으로 유명한 두 작가이지만 그들의 소설을 읽는 것은 문장과 서사 외에 기대할 것이 있다는 점에서 특별하다. 비교적 짧은 장르인 시를 통해 보여준 문학의 지향점과 분위기가 소설이라는 긴 호흡 안에서 어떻게 달라지는지 비교해 보는 즐거움이 크다. 시인의 소설은 말수 적은 사람이 고민 끝에 꺼내놓는 은밀하고 각별한 사연 같다.

"여기 뭔가 떨어져 있다."

2층 테이블에 자리를 잡고 앉자 뒤에서 베케트가 나타났다. 늘 그런 식이다. 뭔가 떨어져 있다. 그건 베케트만의 인사법으로,

그는 이름을 부를 줄 모르고, 그는 안녕?이라고 말할 줄 모르고, 잘 지냈니? 할 줄 몰라서 바닥에 뭐가 떨어져 있다 말한다. 뭐가 떨어져 있다는 말과 함께 나는 베케트가 왔구나 한다.

문보영, 〈베케트의 밧줄 가게〉 중

문보영은 자신의 현재 관심사를 소설 곳곳에 배치한다. 그는 소설을 통해서도 주변을 새롭게 보려는 시도를 지속하는데, 이는 특히 시선의 움직임을 따라 끊임없이 다른 사유를 전개해 나가는 주인공을 통해 잘 드러난다. 인물의 시선과 생각을 그대로 따라갈 수 있어서 독자는 문보영 시인의 글을 쉽다고 느낄지도 모르겠다. 하지만 이야기가 품은 메시지는 결코 간단하지 않다.

중심인물인 베케트는 인사를 건넬 줄 몰라서 엉뚱한 말로 사람과의 대화를 여는 사람이다. 위 장면은 대단히 사소하지만 구체적이어서 독자로 하여금 베케트의 성격을 단번에 파악하게 만든다. 이처럼 시인은 다소 엉뚱해 보이는 장면-이미지를 세밀하게 구성해 둠으로써 베케트가 사교적인 사람은 아니지만 교제에 최선의 노력을 다한다는 것, 동시에 관계 맺기에 문제를 겪고 있으리라는 것을 명징하게 그려낸다.

꿈속이 아니라면 설명하기 힘든 신비한 건물 안에서 화자인 '나'와 베케트가 만난다. '나'가 마주한 문, 베케트가 꿈꾸는 밧줄 가게의 구조, 과거 농사를 짓던 베케트가 수확한 거대한 감자 등 두 사람을 둘러싼 발랄하고 엉뚱한 이미지가 모두 관계 맺기의 은유로 읽혀 흥미롭다. '관계'라는 이름의 다양한 역학 자체를 형상화한 듯 보이는 하나의 건물. 그곳을 끝까지 오르게 된 '베케트'는 드디어 완전히 새로운 길을 찾는다.

언제든 떠날 수 있게 방세간은 단출하게 장만할 것. 용연과 복희가 연인 사이라는 걸 은숙은 죽은 뒤에야 알았다. 그래서 어느 밤에 그들을 불쑥 찾아왔다(아! 은숙은 비명횡사하지 않고 살던 대로 살다가 웃는 상으로 세상을 떴다. (……)) 그 후로 은숙은 용연과 복희를 종종 찾아왔다. 두 사람은 그 만남을 기쁨으로 삼았다. 그런데도 그들은 은숙이 보름달이 뜨는 밤에만 나타난다는 사실을 깨치곤 부러 그날에 맞춰 밤마실을 나가기도 했다. 애쓰고 싶지 않아서였다. 부모와 자식으로 사는 동안 그리 애썼으면 되었다. 은숙도 비슷한 심정이어서 서운할 것도, 속상한 것도 없었다.

김현, 〈수월水月〉 중

수월이라는 술집을 중심으로 용연과 복희가 만나 사랑하고 살아가는 얼마간의 이야기를 담은 김현의 소설은 어딘가 스산한 분위기를 풍긴다. 소설에 등장하는 다섯 명의 여성은 한 번씩 지난한 삶의 굴곡을 건너온, 산전수전 다 겪은 백전노장처럼 보인다. 하는 일이 잘 안돼도 실망하지 않고 행여 일이 잘되더라도 평정심을 잃는 법이 없다. 문득문득 찾아오는 내면의 쓸쓸함에 호들갑을 떠는 일도 없다.

그렇다고 그들이 자신과 인생을 등한시하는 것은 아니다. 일상에 충분한 정성을 기울이면서도 세상이 쉽게 달라지리라 기대하지 않는 사람들이랄까. 김현 시인은 주류의 힘에 저항하는 약자의 목소리에 꾸준히 귀를 기울여왔다. 어쩌면 우리는 어렴풋이 짐작하고 있었는지도 모른다. 이 작가가 한 세계를 꾸리면 이런 모습이 되리란 걸 말이다. 편견과 오래 싸워온, 일상 속에서 그런 싸움을 견뎌온 인물들이 이처럼 초연하지 않다면 그것도 이상한 일일 것이다.

글 김잔디_[비유] 편집자 | **사진** 웹진 [비유]

연극in

너를 닮은 작은 아이, 나무도령 이야기

서울돈화문국악당 음악극 축제 <나무의 아이>

비가 내리는 날, 일곱 살 아이와 함께 서울돈화문국악당으로 음악극 축제 〈나무의 아이〉를 보러 갔다. 관객들은 마스크로 얼굴의 절반을 가렸지만 아이들의 뒷모습만 봐도 들뜬 마음이 느껴졌다. 모든 어린이가 비슷한 마음이기를 바라며 아이와 공연장으로 들어갔다. 시끌시끌하던 공연장이 암전과 함께 조용해지고 다시 조명이 켜졌다.

무대 중앙에 한 소녀가 등장한다. 소녀는 더워서 짜증이 난 상태다. 큰 책이 날아와 부채질을 해주자 기분이 좋아진 소녀는 책을 들고 읽기 시작한다. 나무도령 이야기는 여기서 시작된다. 잠을 자던 마고여신은 갑자기 불어난 물웅덩이에 옷이 젖어 잠에서 깨어난다. 마고여신은 그 물웅덩이를 들어 올려 세상을 만든다. 어느 날, 마고여신은 세상을 둘러보다가 이상한 아이를 발견한다. 바로 나무가 아빠라는 나무도령이다. 나무도령은 모습이 다른 아빠를 가졌다는 이유로 친구들에게 놀림을 받는다. 그러던 중 마을에서는 큰 나무들을 베어버린다는 소문이 떠돈다. 이 소문을 들은 마고여신은 사람들에게 벌을 내리기 위해 홍수를 일으킨다. 나무도령은 나무아빠의 도움으로 홍수를 피할 수 있었지만 나무도령을 놀리던 친구는 홍수로 인해 아빠를 잃는다. 이 사건으로 나무도령을 놀리던 친구는 비로소 자신의 아빠와 나무아빠가 다르지 않은 '아빠'임을 깨닫는다. 겉모습의 다름을 받아들이고 모두 친구가 된다.

이 공연은 액자식 구성이다. 공연의 시작과 끝이 한 소녀가 책을 펴고 덮는 장면으로 이뤄져 있다. 그 덕분에 아이들은 누군가가 이야기를 들려주는 듯한 느낌을 받으며 공연에 더욱 집중하게 된다. 또한 이 공연에는 아이들의 흥미를 유발하고 상상력을 자극하는 요소들이 자주 등장한다. 무대 위에서 사용하는 대도구들은 이동이 가능한 블록 형태로, 필요에 따라 의자·배 등 나무도령이 숨는 공간으로 그 쓰임새를 달리한다. 나무도령과 나무아빠가 대화할 때는 무대 뒤로 그림자가 크게 나타난다. 멧돼지와 개미는 각각 동물의 특징적 일부분만 소품으로 등장하고 모기는 소리로만 등장한다. 블록, 그림자 그리고 소품을 사용한 상황극에 대다수 아이가 열광했다. 연주자와 배우 사이의 경계도 자유로웠다. 연주자가 갑자기 대사를 하고, 연기하던 배우가 연주자와 어울려 악기를 연주했다. 짧은 시간 내 다양한 장치들이 관객들을 매료했다.

이 공연은 우리나라의 홍수설화 중 하나인 〈목도령과 대홍수〉를 바탕으로 만들어졌다. 동서양을 막론하고 설화 속에서 홍수의 역할은 자연을 거스르는 존재를 벌하고 자연을 지키는 것이다. 〈나무의 아이〉에서 마고여신은 자연을 파괴한다는 이유로 인간은 쓸모없다고 말한다. 마고여신은 나무도령에게 썩은 씨앗을 주며 살고 싶으면 꽃을 피우라고 숙제를 낸다. 이 불가능을 가능하게 만드는 것은 서로 도와주고 아껴주는 인간의 힘이다. 나무도령은 나무아빠에게 배운 대로 이 썩은 씨앗에게 정성을 다한다. 그리고 꽃을 피워낸다. 이것은 인간이 자연보다 강하다는 의미가 아닌, 인간애가 자연과 비견될 만큼 위대함을 의미한다. 꽃이 피었을 때, 나무도령이 탄 배가 홍수로 떠돌다가 섬에 도착했을 때, 아이들은 환호하며 박수 쳤다. 나무도령이 나무아빠와 헤어질 때는 관객석 아이들이 소리 내 울었다. 몸이 작다고 공감의 크기가 작지 않다. 아이들은 어른들보다 극 중 상황과 등장인물에 더 깊이 공감하고 있었다. 아동극에서는 마치 공연장 전체가 무대인 것처럼 아동 관객의 반응 또한 작품의 일부라고 느껴진다.

서울돈화문국악당 음악극 축제 〈나무의 아이〉 현장

공연의 주제곡 제목은 '뭐가 보이니'다. 아이들은 이 공연을 통해 무엇을 봤을지 그 시선이 궁금했다. 나는 일곱 살 아이와 공연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다.

나: 나무도령의 엄마는 누구일까?
아이: 투명해서 안 보이는 게 아닐까? 원래 다 엄마는 있잖아.
나: 홍수가 났을 때 나무도령은 왜 멧돼지, 모기, 개미를 구해 줬을까?
아이: 물에 빠졌으니깐 구해야지.
나: 공연은 어땠어? 슬프지 않았어?
아이: 음악도 아름답고 재밌었어. 슬픈 것도 재밌는 거지. 그거는 진짜가 아니잖아.
나: 그런데 나무가 아빠인 사람이 있을까?
아이: 아니, 그건 좀….

막이 내리기 전, 무대 위 모두가 부른 노래는 이 공연이 전하고 싶은 가장 큰 메시지가 아닐까 싶다. 노래의 가사를 공유하며 글을 마무리한다.

"우린 나무야. 우린 꽃이야. 우리 같이 살아갈 세상, 함께 싹을 틔우자. 무럭무럭 자라서 남과 다른 빛깔로, 서로 다른 모습으로, 우리만의 숲을 만들자. 여기 보이니, 여기 보이니, 이 세상이란 아름다운 숲. 이제야 보여. 서로가 보여. 남과 다른 빛깔의 서로 다른 모습의 아름다운 우리, 우리가 여기."
〈우리만의 숲〉

글 최권화_매일 우리집 거실과 주방으로 출근합니다. | **사진 제공** 서울돈화문국악당
※ 본 원고는 지면 관계상 편집되었습니다. 원문은 웹진 [연극in]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메타버스'라는 말이 쓰일까?

넷플릭스 시리즈 〈러브, 데스+로봇〉의 '히바로' 에피소드를 중심으로

앞으로도 메타버스라는 말이 쓰일까? 우리는 이미 이런 말을 수없이 들어왔다. UCC, 창조경제, 4차 산업혁명…. 온 세상이 똑같이 쏟아내다가 5년도 못 가 자연스럽게 사라져 버리는 말. 코로나19 팬데믹이 절정을 지나 이제야 메타버스 담론의 열기가 손을 댈 수 있을 만큼 식었으니 돌아볼 때가 됐다.

우선 질문에 대한 나의 견해부터 이야기하면, 메타버스라는 말이 앞으로도 지금만큼 많이 쓰일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본다. 보편적 어휘로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조금은 있겠지만 만약 그렇다면 그것에는 거대한 소셜 미디어 자본인 페이스북이 '메타'로 이름을 바꾸면서 담론을 견인하려고 하는 영향이 클 것이다.[1] 그 말은, 즉 반대로 메타버스라는 말을 쓰는 것이 회사 '메타'를 연상시키는 경향이 강해지면서 메타버스라는 말의 쓰임이 제한적이 된다는 것을 뜻하기도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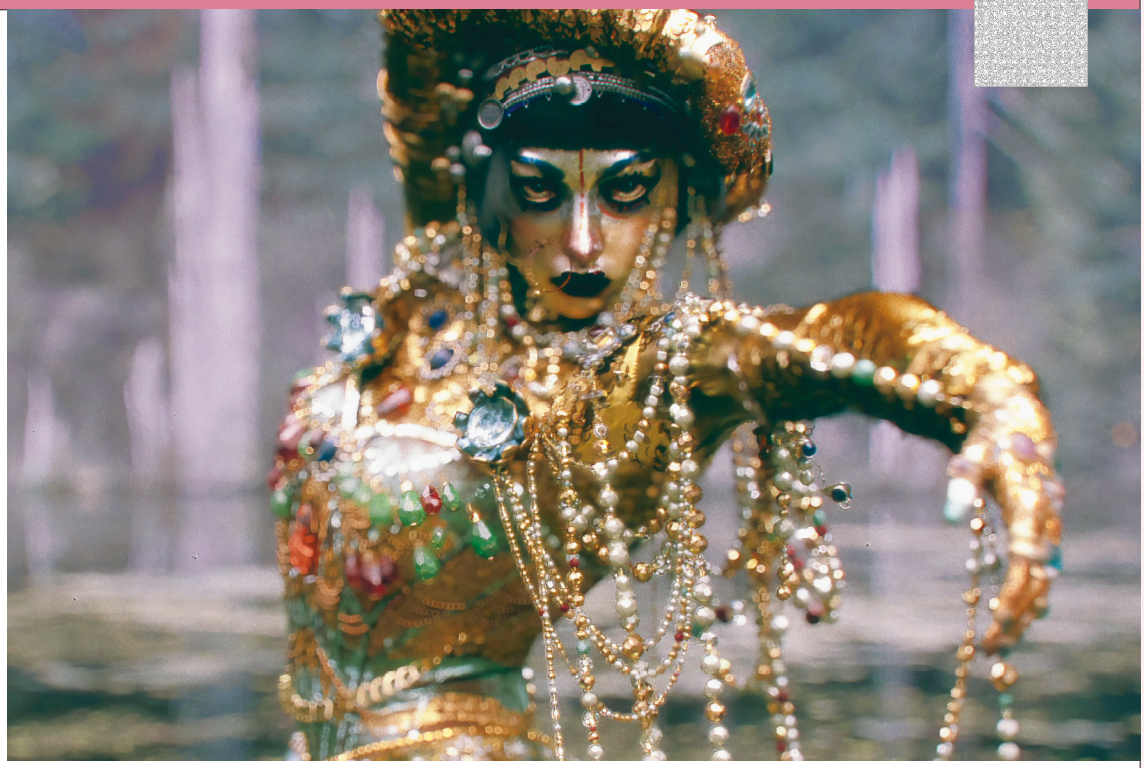
그럼에도 메타버스라는 말 자체가 유의미한 내용을 담고 있지 않다는 것은 아니다. 테크놀로지의 변화에 따른 현실의 위상 변화는 다양한 방면에서 사유해야 할 중요한 문제다. 다만 (산업 주도의 담론이 대체로 그렇듯) 지금 쓰이는 메타버스라는 말은 모호하고, 엄밀하게 규정돼 있지 않으며, 너무도 많은 것을 하나의 키워드로 수렴하는 문제가 있다. 특히 전혀 새롭지 않은 것을 메타버스라고 부르면서 마치 새로운 것으로 인식하도록 하는 등 여러 오해를 발생시키기도 했다.

어떤 말이든 어떤 사람이 그 말을 만들어내고 또 쓰고 있는지를 살피는 것이 중요하다. 여기에서 '담론discourse'이라는 말을 쓰는 것도 같은 이유다. 말의 절대적 의미를 정의하는 것보다 그것이 기호의 체계에서 어떤 위치에 어떻게 자리하고 있는지를 살피는 것이 중요하다. 메타버스라는 말은 명확하게 산업이 주도하고 있는 담론이다. 지난 몇 년간 전 지구를 휩쓴 팬데믹은 많은 것을 바꾸어놓았다. 화상 회의나 재택근무 등이 빈번해지면서 일종의 착시가 발생했고 발 빠른 자본은 그것을 매개하는 플랫폼을 만들고 더 나아가 일시적 현상에 그치지 않도록 하기 위해 힘을 쓰고 있다. 그 과정에서 메타버스라는 말을 하나의 동력으로 삼아 다방면의 관심과 지원을 유치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서는 무려 '국고'라는 머리말을 붙여서 '메타버스 예술활동 지원사업'을 공모하기도 했다. '실시간성' '아바타' '상호작용' '경험가치'라는 네 가지의 항목까지 구체적으로 '메타버스 예술활동'이 무엇인지 규정하기도 했는데 이것은 과연 몇 년이나 지속될 수 있는 사업일까? 예술도 기술 변화에 당연히 발 빠르게 대처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테크놀로지의 문제와 산업·자본 주도의 담론을 날카롭게 구분하는 것은 중요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술가들은 그런 기금을 통해 훌륭한 예술 작업을 펼쳐낼 것이다. 기존의 플랫폼에 올라타 산업적 소비를 촉진하는 것을 넘어서 (실제로 예술 작업이 산업 플랫폼의 프로모션에 이용당하는 것은 너무도 흔한 일이다) 주어진 것과 전혀 다른 방식으로 자본의 플랫폼을 전유하는 것이 예술적 가로지르기가 된다는 것을 이해하고 있는 예술가가 많기 때문이다. 메타버스에서 벌이는 예술 작업은 기존의 상업적 플랫폼의 작동 방식을 이상하게 점령하는 방식으로만 가능한 것일지도 모른다.

1 세계 최대 사회관계망서비스 기업인 페이스북이 지난해 회사 이름을 '메타(Meta)'로 변경했다.—이하 편집자 주
2 팀 밀러와 데이비드 핀처가 제작한 미국의 성인 SF 웹 애니메이션으로 넷플릭스에서 방영됐다.
3 몸에 센서를 부착하거나 적외선을 이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인체의 움직임을 디지털 형태로 기록하는 작업을 말한다.



넷플릭스 시리즈 〈러브, 데스+로봇〉의 '히바로' 에피소드

한편으로 메타버스의 미학적 가능성은 가상현실과 디지털 세계에서 드러나는 신체성을 탐구하는 방식으로도 이뤄지고 있다. 최근 공개된 넷플릭스 시리즈 〈러브, 데스+로봇〉[2] 의 '히바로' 에피소드는 일종의 댄스필름으로 인식되면서 반향을 일으키고 있다. 3D 애니메이션인 그 작업 속 춤은 사라 실킨Sara Silkin이라는 안무가의 작업을 기반으로 여러 댄서의 움직임을 직접 디지털로 옮겨 만들어졌는데, 흥미로운 점은 모션 캡처[3] 를 쓰지 않았다는 것이다. 손으로 작업한 디지털 모델링과 모션 그래픽은 춤을 디지털로 번역하는 작업에서 발생하는 인간의 몸과 디지털 이미지의 간극을 드러내기도 한다. 그렇게 만들어진 특유의 친숙하지만 낯선unheimliche 감각은 현실에서 드러나는 신체성과 디지털에서 드러나는 신체성을 양쪽 모두에서 다시 생각하게 만든다. 이런 식으로 디지털과 가상현실, 그리고 신체성의 문제는 앞으로 더 많은 미학적 사유를 불러일으킬 것이다.

가상현실이 세계 자체를 다른 방식으로 옮겨놓으면서 더욱 다양한 신체, 더 나아가 인간 중심의 신체에서 벗어나는 사유를 가능하게 한다는 점은 메타버스라는 말 자체보다 훨씬 중요한 문제다. 다양한 가능성이 활짝 열리는 세계가 실제 세계에 겹쳐지고 있다는 사실은 장애나 다른 신체적 제약, 혹은 모틸리티motility· 운동성를 가로지르는 문제로 생각할 수도 있다. 하지만 가상현실에는 자본주의라는 현실 세계의 질서 또한 겹쳐져 있기에 복합적으로 이해해야 한다. 부자는 풍요로운 현실을 살고, 가난한 이만 가상현실로 도피하는 디스토피아적 세계를 눈앞에 두고 있는 것일지도 모르겠다. 그러나 가상 세계가 얼마나 더 많은 가능성을 가지고 있을지 우리는 아직 알 수 없다. 메타버스라는 말에 끼어 있는 거품을 걷어내야지만 더 흥미롭게 볼 수 있는 지점이 발견될 것이다. 가상 세계에서 빚어지는 몸과 춤의 문제는 이제 시작이다. 확실한 사실은 우리는 어디에서나 춤을 출 것이라는 사실이다. 컴퓨터 안에서라도 말이다.

글 권태현_큐레이터, [춤in] 편집위원 | **사진 제공** 넷플릭스

※ 본 원고는 지면 관계상 편집되었습니다. 원문은 웹진 [춤in]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07
2022 JULY

Mon	Tue	Wed
4 ● 전시 <미지에서 온 소식>(~7. 4)	**5** ● 공연 <이화스트링 소사이어티 스테이지> ● 공연 <몬트리올 심포니 오케스트라 내한공연> ● 연극 <엄마는 외계인>(~7. 10) ● 연극 <무간도>(~7. 10) ● 연극 <편입생>(~7. 23) ● 공연 <더울림 앙상블 제4회 정기연주회> ● 전시 <민속이란 삶이다>(~7. 5)	**6** ● 뮤지컬 <동백꽃 피는 날>(~7. 6) ● 공연 <온 클래식> ● 무용 <무교육적 댄스>(~7. 8) ● 연극 <자매의 밤>(~7. 10) ● 무용 <국립현대무용단 힙합>(~7. 10) ● 연극 <나 여기있어>(~7. 17) ● 전시 <짙푸른 색 세상>(~7. 19)
11 ● 공연 <2022 그랜드 갈라콘서트 Ⅰ> ● 공연 <아크 피아노 콰르텟 리사이틀>	**12** ● 무용 <자조방방> ● 뮤지컬 <실비아, 살다>(~8. 28) ● 뮤지컬 <V 에버 애프터>(~9. 12) ● 연극 <우리집에 왜 왔니>(~9. 12) ● 뮤지컬 <쓰릴 미>(~10. 9) ● 전시 <내게 온 풍경>(~7. 12) ● 전시 <Planet in the Box>(~8. 31) ● 전시 <이타카>(~7. 12)	**13** ● 공연 <베르디 & 베리즈모> ● 공연 <더 그레이트 갈라 콘서트> ● 연극 <가별이를 찾아서>(~7. 24) ● 연극 <햄릿>(~8. 13) ● 공연 <박기이 피아노 독주회> ● 공연 <배시온 바이올린 독주회> ● 전시 <틈 사이로 난 길>(~7. 13) ● 전시 <Forest, re>(~8. 19
18	**19** ● 연극 <빈센트 리버>(~10. 2)	**20** ● 무용 <클래식 발레 마스터피르 Ⅱ> ● 공연 <고하진 더블베이스 독주회> ● 연극 <네네네>(~7. 21) ● 뮤지컬 <푸에르 자부르타 웨이라>(~10. 10) ● 뮤지컬 <킹키부츠>(~10. 23) ● 전시 <g>(~7. 20)
25 ● 강연 <신당아트랩>	**26** ● 국악 <박다울 콘서트>(~7. 27) ● 연극 <살아있는 자를 수선하기>(~9. 4) ● 뮤지컬 <시데레우스>(~10. 16) ● 연극 <동무를 위하여 & 토끼의 재판>	**27** ● 연극 <마녀>(~7. 31) ● 공연 <2022 세실콘서트 - 프로젝트 온도>

SFAC 문화예술공간

- 금천예술공장
- 대학로연습실
- 문래예술공장
- 삼일로창고극장
- 서교예술실험센터
- 서서울예술교육센터
- 서울거리예술창작센터
- 서울무용센터
- 서울연극센터
- 서울예술교육센터
- 시민청
- 신당창작아케이드
- 연희문학창작촌
- 예술청 / 대학로센터
- 잠실창작스튜디오
- 청년예술청
- SFAC 행사·축제·예술교육·지원 및 협력
- 서울예술인희망캠페인
- 대학로극장 쿼드
- 기타 문화행사

※ <서울예술인희망캠페인>은 지원사업 선정 결과와 관계없이 서울에서 일어나는 문화예술 행사를 폭넓게 홍보하는 공익캠페인입니다. 캠페인 신청 및 더 많은 정보 확인은 서울문화재단 누리집에서 가능합니다.

Thu	Fri	Sat	Sun
	1 ● 공연 <TROU BA DOUR> ● 공연 <수고했어요 여러분> ● 축제 <2022 여우락 페스티벌>(~7. 23) ● 연극 <달콤한 노래>(~7. 17) ● 국악 <바운스>(~7. 3) ● 연극 <잔인하게, 부드럽게>(~7. 10) ● 연극 <아르쉬투록 대왕>(~7. 10) ● 연극 <클럽 라틴>(~7. 24) ● 연극 <추기경 김수환>(~7. 10) ● 전시 <한터 아리랑>(~7. 10)	**2** ● 국악 <소리꾼 김용우 콘서트> ● 뮤지컬 <앤서니브라운의 돼지책> ● 공연 <너의 이름은 필름 콘서트>(~7. 16) ● 전시 <모든 것과 아무것도 아닌 것>(~7. 2) ● 전시 <찢어진 그림>(~7. 2) ● 전시 <별이 피다 Bloom>(~7. 2) ● 전시 <천진난만>(~7. 2)	**3** ● 연극 <초선의원>(~7. 3) ● 뮤지컬 <태권, 날아올라>(~7. 3) ● 연극 <나무가 들려주는 사랑이야기>(~7. 3) ● 연극 <파수꾼 + 셋>(~7. 3) ● 무용 <은미와 영규와 현진>(~7. 3) ● 전시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익숙함>(~7. 3) ● 전시 <다운샷>(~7. 3) ● 전시 <알 수 없는 에러가 발생했습니다 복구 프로그램을 가동합니다>(~7. 3
7 ● 공연 <프랭크 와일드혼의 뮤지컬 콘서트> ● 공연 <메조소프라노 백재은 리사이틀> ● 연극 <더스트>(~7. 10) ● 연극 <누구와 무엇>(~7. 10) ● 연극 <연희 도깨비>(~7. 17) ● 연극 <3일>(~7. 17) ● 전시 <Beyond Horizon>(~8. 4) ● 전시 <용도의 쓸모 1장>(~7. 7) seoul stage 11	**8** ● 공연 <황보영 피아노 독주회> ● 공연 <강주이 비올라 독주회> ● 전시 <I NEED U>(~7. 8)	**9** ● 연극 <세상이 이렇게 끝나는구나 쾅 소리 한 번 없이 흐느낌으로>(~7. 9) ● 국악 <강현지 해금 독주회> ● 무용 <사우나 세미나> ● 연극 <아일랜드>(~7. 17) ● 뮤지컬 <캐치 티니핑>(~8. 21) ● 전시 <감각의 시어>(~7. 9) ● 전시 <소신제>(~7. 9) ● 전시 <숲속으로>(~7. 9)	**10** ● 뮤지컬 <카파이즘>(~7. 10) ● 연극 <여도>(~7. 10) ● 연극 <남겨진 사람들>(~7. 10) ● 연극 <고시원>(~7. 10) ● 연극 <툇마루가 있는 집>(~7. 10) ● 연극 <달수랑 정직이랑 바다아이>(~7. 10) ● 전시 <돌고 돌고 돌고>(~7. 10) ● 전시 <존재할 만한>(~7. 10) ● 전시 <손은 눈보다 빠르다>(~7. 10)
14 ● 국악 <영랑태평> ● 연극 <임대아파트>(~8. 14) ● 뮤지컬 <민쩌미>(~8. 15) ● 전시 <드미드미 바나나>(~7. 14) ● 공연 <리수스 콰르텟 리사이틀> ● 전시 <UNSAID>(~7. 14)	**15** ● 공연 <ㅋㅋㅋ프로젝트>(~7. 16) ● 연극 <화이트룸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7. 17) ● 전시 <2022 BEST 한국-스페인 건축 공모전 전시회>(~7. 15) ● 전시 <LES DERNIERES PEINTURES>(~7. 15) ● 전시 <제9회 시민청 도시사진전>(~8. 15)	**16** ● 공연 <이윤의 바이올린 리사이틀> ● 공연 <악기야 놀자>(~7. 17) ● 뮤지컬 <점박이 공룡대모험 뒤섞인 세계>(~8. 21) ● 뮤지컬 <대결! 최고의 이발사>(~8. 28) ● 뮤지컬 <수박 수영장>(~8. 28) ● 전시 <I am looking for an orange>(~7. 16) ● 전시 <무명 - 정신의 위치>(~7. 16)	**17** ● 뮤지컬 <클림트>(~7. 17) ● 연극 <서교동에서 죽다>(~7. 17) ● 전시 < Destruction=Creation>(~7. 17) ● 전시 <그냥->(~7. 17) ● 전시 <각>(~7. 17) ● 전시 <All about Love>(~7. 17) ● 전시 <검은 깃털>(~7. 17) ● 전시 <통근 생활>(~7. 17) ● 전시 <The Paths>(~7. 17)
21 ● 워크숍 <대화의 감> ● 연극 <청년 윤봉길>(~7. 24) ● 연극 <더 클라운>(~7. 31) ● 연극 <예외와 관습>(~8. 7) ● 공연 <왕혜진 첼로 독주회> ● 축제 <서울문화재단 대학로극장 QUAD 개관 페스티벌>(~8. 28)	**22** ● 공연 <파우스트> ● 연극 <백조마을의 차이콥스키>(~7. 31)	**23** ● 공연 <선우예권 피아노 리사이틀> ● 뮤지컬 <세종대왕의 눈물2> ● 연극 <어딘가, 반짝>(~7. 24) ● 뮤지컬 <타루와 리나>(~8. 28) ● 전시 <자연 속의 시간>(~7. 23) ● 전시 <특성 없는 여자>(~7. 23)	**24** ● 뮤지컬 <이퀄>(~7. 24) ● 연극 <스트립티어즈>(~7. 24) ● 전시 <드로잉 나우>(~7. 24) ● 전시 <신안 바다 - 뻘, 모래, 바람>(~7. 24) ● 전시 <블루 플래닛 - 바다>(~7. 24) ● 전시 <Nevin Aladag: Motion Lines>(~7. 24)
28 ● 공연 <장유진 바이올린 독주회> ● 무용 <에투알 갈라>(~7. 29) ● 뮤지컬 <앤>(~7. 31) ● 전시 <하얀 성>(~7. 28)	**29** ● 국악 <창창 프로젝트>(~7. 31) ● 뮤지컬 <스페셜 딜리버리>(~8. 14) ● 연극 <XXL 레오타드 안나수이 손거울>(~7. 31) ● 전시 <셰퍼드 페어리, 행동하라!>(~11. 6) ● 전시 <노마드랜드>(~7. 29)	**30** ● 뮤지컬 <반짝반짝 달님이>(~8. 15) ● 전시 <서로 선 면>(~7. 30) ● 전시 <You Have No Power Here>(~7. 30) ● 전시 <Your Present>(~7. 30) ● 전시 <Inside the new blind spots>(~7. 30) ● 전시 <The Square>(~7. 30)	**31**

서울문화재단

서울문화재단 대학로극장 쿼드QUAD 개관 페스티벌

다양한 장르의 공연이 가능한 가변형 블랙박스 공연장인 대학로극장 쿼드가 개관한다. 7월 21일부터 8월 28일까지, 6주간 클래식부터 재즈·연극·무용·전통음악·다원예술 등 다채로운 공연 프로그램 12개를 선보인다.

일시 7월 21일(목)~8월 28일(일) | **장소** 서울문화재단 대학로극장 쿼드 | **관람료** 개관 기념 50% 특별 할인가 1만 5천 원(※쿼드 홈페이지 예매 시 5천 원 추가 할인, 관람연령·공연별 상이, www.quad.or.kr 참조) | **문의** 1577-0369

서울문화재단

강연 <신당아트랩>

신당창작아케이드에서 매달 공예디자인 분야 전문가를 초청해 진행하는 시민 참여 강연이다. 공예 분야의 트렌드, 판로 개척 등의 다채로운 주제로 진행된다.

일시 7월 25일(월) 오후 2시 | **장소** 청년예술청 그레이룸 | **관람료** 무료 | **문의** 02-2232-8833

서울문화재단

공연 <서울 스테이지11>

매달 첫 번째 목요일 오전 11시에 펼쳐지는 예술공감 콘서트다. 서울문화재단이 운영하는 예술 공간을 무대로 클래식, 무용, 북 콘서트, 국악, 재즈 등 다채로운 공연을 선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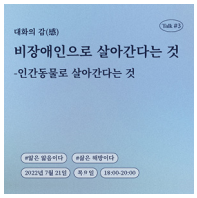
일시 7월 7일(목) 오전 11시 | **장소** 서울문화재단 운영 공간 | **관람료** 무료 | **문의** 02-2676-6816

서울문화재단

전시 <Planet in the Box>

서울문화재단X로레알코리아의 장애예술인 친환경 아트 공모전 <CREATE YOUR BEAUTY> 수상작 전시로, 고정관념의 상자에서 벗어나 새롭게 자연을 바라본다.

일시 7월 12일(화)~8월 31일(수) | **장소** 롯데백화점 본관 본점 4~6층 | **관람료** 무료 | **문의** 02-423-6675



서울문화재단

워크숍 <대화의 감>: 비장애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인간동물로 살아간다는 것

서울예술교육센터 감정서가에서 예술가와 '대화'를 매개로 감정과 예술의 교차 지점을 탐색하며 우리 일상을 되돌아본다.

일시 7월 21일(목) 오후 6~8시 | **장소** 서울예술교육센터 감정서가 | **관람료** 무료 | **문의** 02-3785-3199

서울문화재단

사진전시회 <제9회 시민청 도시사진전>

'멋진 하루로 기억되는 보통의 순간'을 주제로 공모에 선정된 시민예술가 사진 작품 43점과 일상 이야기가 담긴 에세이 전시를 개최한다. 관람객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영수증 사진기' 체험 프로그램도 운영된다.

일시 7월 15일(금)~8월 15일(월) ※일요일 휴관, 체험존 운영시간 월~토 오전 10시~오후 8시 30분 | **장소** 서울시청 시민청 | **관람료** 무료 | **문의** 02-739-5818

구로문화재단

찾아가는 유랑극단 <내 방망이 내놔!>

계속해서 무언가를 잃어가는 과정을 통해 비로소 찾게되는 도깨비 이야기로, 보고 듣고 느끼는 3색 만족 가족 연극이다.

일시 7월 7일(목) 오후 7시 30분 | **장소** 오류아트홀 | **관람료** 무료 | **대상** 사전신청자 | **문의** 02-2614-7967

서초문화재단

공연 <SSUM 타는 콘서트>

라틴, 재즈 장르의 이색적인 여름 콘서트다. 7월 14일(목)에는 링다플로레스타&밴드, 8월 18일(목)에는 재즈보컬리스트 김혜미, 8월 25일(목)에는 난아진&밴드 매건이 무대를 준비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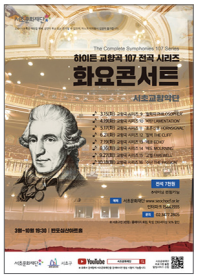
일시 7월 14일(목) 오후 7시 30분 | **장소** 반포심산아트홀 | **대상** 8세 이상 | **관람료** 7천 원 | **문의** 02-3477-2805, www.seochocf.or.kr

구로문화재단

공연 <한여름 밤의 꿈>

한여름 밤 셰익스피어가 들려주는 유쾌한 사랑 이야기의 발레 공연이다. 셰익스피어의 대표적인 희곡 <한여름 밤의 꿈>을 원작으로 숲속 요정의 실수로 엇갈려 버린 연인이 다시 사랑을 찾아가는 과정을 발레로 그려낸다.

일시 7월 22일(금) 오후 7시 30분, 23일(토) 오후 3시 | **장소** 구로아트밸리 예술극장 | **관람료** R석 3만 원, S석 2만 원 | **문의** 02-2029-1724



서초문화재단

화요콘서트 <하이든 교향곡 전곡 시리즈 13>

교향곡의 아버지 하이든 탄생 300주년을 기념해 서초교향악단이 선보이는 아시아 최초 하이든 교향곡 전곡 시리즈다.

일시 7월 19일(화) 오후 7시 30분 | **장소** 반포심산아트홀 | **대상** 8세 이상 | **관람료** 7천 원 | **문의** 02-3477-2805, www.seochocf.or.kr

구로문화재단

브런치콘서트 <이달의 공연 '7월 고전의 맛'>

트리오 제이드의 피아노 3중주로 인생의 기쁨과 슬픔을 맛볼 수 있는 클래식 공연이다. 브런치콘서트는 대중음악, 클래식, 아카펠라 등 다양한 장르의 공연을 통해 달마다 다른 공연을 찾는 기쁨을 선물한다.

일시 7월 26일(화) 오전 11시 | **장소** 구로아트밸리 예술극장 | **관람료** 1만 원 | **문의** 02-2029-1721

서초문화재단

온라인 공연 해설이 있는 발레 <클래식발레 마스터피스 II >

와이즈발레단이 출연하고 발레마스터가 들려주는 흥미진진한 명품 발레 갈라 콘서트다. 클래식 발레부터 컨템포러리 발레까지, 다양한 발레의 세계를 총망라했다.

일시 7월 20일(수) 오후 7시 30분 | **장소** 반포심산아트홀 | **대상** 만 5세 이상 | **관람료** 1만 4천 원 | **문의** 02-3477-2805, www.seochocf.or.kr

서초문화재단

전시 <알음다움>

유리라는 소재가 지닌 물성의 아름다움을 전달하는 전시다. 신형록이 기획하고, 선우용·서승빈·이규비가 작가로 참여한다.

일시 7월 4일(월)~9월 23일(금) 오전 9시~오후 6시(※토·일·공휴일 휴관) | **장소** 서초문화재단 서리풀 休 갤러리 | **대상** 전체 | **관람료** 무료 | **문의** 02-3477-2074, www.seochocf.or.kr

중랑문화재단
JUNGNANG CULTURAL FOUNDATION

시가 있는 국악콘서트 <시歌, 노래歌 되어>

효명세자, 월명사 등 전통 향가부터 박인환, 김용택, 유재영, 기형도 등 현대 시인의 시까지. 시를 주제로 한 아름다운 노랫말을 선율과 함께 들려준다. 보컬리스트 안정아와 음악그룹 '오롯'이 선물하는 초여름 밤의 자그마한 선물을 풀어보자.

일시 7월 5일(화) 오후 7시 | **장소** 중랑구청 대강당 | **대상** 전체 | **관람료** 무료 | **문의** 02-3407-6536

서초문화재단

전시 <작가의 레시피_Artist' Recipes>

미술 작품을 신비화하기보다는 작품을 마치 일상과 가까운 평범한 사물과 같이 표현해 관객과 소통하는 전시다. 김명지가 기획하고, 이유림·이유진·조유정이 작가로 참여한다.

일시 7월 1일(금)~7월 30일(토) 화~일 오전 11시~오후 7시(※월요일·공휴일 휴관) | **장소** 서초문화재단 서리풀청년아트갤러리 | **대상** 전체 | **관람료** 무료 | **문의** 02-3477-2074, seoripulgallery.com

백자영 작곡발표회 <with mim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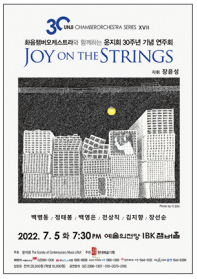
2017년 한국예술창작아카데미 음악 분야에 선정된 작곡가 백자영의 작곡 발표회다. '피아노 솔로를 위한 뭉쳐짐, version II' '두 대의 바이올린을 위한 기억의 조각' '베이스클라리넷, 기타 그리고 피아노를 위한 일체감' 등을 연주한다.

일시 7월 7일(목) 오후 7시 30분 | **장소** 일신홀 | **대상** 전체 | **관람료** 2만 원 | **문의** 02-2266-1307

지역특성화 프로그램 <청순지도-청년들의 순간을 담은 지도>

공부와 취업에 지친 청년들의 다시 오지 않을 아름다운 순간을 자신만의 지도에 사진과 오디오로 남겨보는 프로그램이다. 노량진에서 공부하는 청년(만 19~39세) 누구나 신청 가능하며 프로그램별 선착순 12명을 모집한다. '표현하다' 네이버 예약 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다.

일시 7월 2일~8월 6일 매주 토요일 오전 10 ~12시 | **장소** 사육신역사관 | **참가비** 무료 | **문의** 070-8648-1616



공연 <화음챔버오케스트라와 함께하는 운지회 30주년 기념 연주회>

'음악의 본질에 뜻을 둔 이들의 모임'이라는 뜻을 가진 운지회가 30주년을 맞아 기념 연주회를 연다. 30년을 회고하며 중견 작곡가 정태봉, 백영은, 전상직, 김지향, 장선순의 작품이 화음챔버오케스트라의 연주로 재연된다.

일시 7월 5일(화) 오후 7시 30분 | **장소** 예술의전당 IBK챔버홀 | **대상** 전체 | **관람료** 2만 원(학생 1만 원) | **문의** 02-2266-1307, 010-2073-2185

공연 <히사이시 조 영화음악 콘서트 2022 서울 앙코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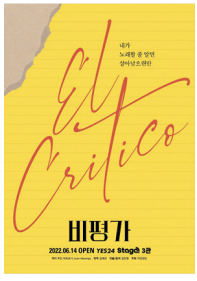
'히사이시 조 영화음악 콘서트'가 오는 7월 23일, 24일 이틀간 롯데콘서트홀에서 개최된다. 영화음악의 거장 작곡가 히사이시 조의 영화&애니메이션 음악을 70인조 풀 편성 오케스트라와 협연으로 선보인다.

일시 7월 23일(토)~24일(일) 토요일 오후 2시·6시, 일요일 오후 5시 | **장소** 롯데콘서트홀 | **대상** 만 7세 이상 | **관람료** R석 12만 원, S석 9만 원, A석 6만 원, B석 4만 원 | **문의** 070-4190-1289

뮤지컬 <니진스키>

뻔한 발레를 요구하는 관객에게 환멸을 느끼던 니진스키는 극단 '발레 뤼스'의 단장인 디아길레프로부터 "하고 싶은 걸 하라"는 제안을 받고 발레 뤼스에 입단한다. 니진스키는 발레 뤼스에서 만난 천재 작곡가 스트라빈스키가 쓴 <페트루슈카>의 주인공으로 무대에 서며 파리에서 성공적으로 데뷔한다.

일시 5월 24일(화)~8월 21일(일) 화·목·금 오후 8시, 수 오후 4시·8시, 토 오후 3시·7시, 일·공휴일 오후 2시·6시(※월요일 휴관) | **장소** 대학로아트원씨어터 1관 | **대상** 14세 이상 | **관람료** R석 6만 6천 원, S석 4만 4천 원 | **문의** 02-556-5910



연극 <비평가>

진실한 연극, 세상의 거짓이나 소음에 우호적이지 않은 연극을 기대하는 비평가 볼로디아는 날카롭고 혹독한 평론을 해왔다. 한때는 많은 이들에게 주목을 받으며 영향력을 행사했지만 이제는 자신만의 책 감옥에서 세상과 격리된 듯 지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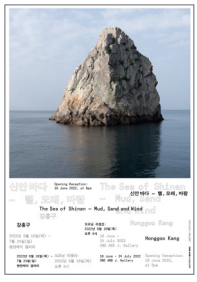
일시 6월 14일(화)~8월 21일(일) 화~금 오후 8시, 토 오후 3시·7시 | **장소** 예스24스테이지 3관 | **대상** 만 13세 이상 | **관람료** 5만 5천 원 | **문의** 02-742-9637

서울예술인희망캠페인

전시 <FUTURE FOOD·혀가 느끼는 고민>

디자이너들의 시선을 통해 바라본 '미래 식문화'의 양상을 다양한 미디어로 보여주며 스스로 생각해 볼 화두를 던진다. 현재의 소비 패턴을 지속할 때 야기될 기후변화, 식량 손실, 낭비 개선, 공장식 축산 등의 사회적 이슈를 쟁점으로 다뤘다.

일시 5월 18일(수)~12월 31일(토) | **장소** 셀린박 갤러리 | **관람료** 일반 1만 원, 학생 8천 원 | **문의** 070-5222-3778



전시 <강홍구 : 신안 바다 - 뻘, 모래, 바람>

신안군 출신 강홍구 작가가 7월 24일까지 서울 원앤제이 갤러리에서 <신안바다-뻘, 모래, 바람> 개인전을 통해 신안의 섬과 바다 풍경을 담은 40여 점의 사진 작품을 선보인다. 천여 개의 섬으로 이뤄진 전라남도 신안군의 섬과 바다 풍경을 17년간 기록한 방대한 작업이 돋보인다.

일시 6월 16일(목)~7월 24일(일) 화~일 오전 11시~오후 6시(※월요일, 공휴일 휴관) | **장소** 원앤제이 갤러리 | **관람료** 무료 | **문의** 02-745-1644, oneandj.com

서울예술인희망캠페인

전시 <드미드미 바나나>

밴드 '드미드미 바나나DemiDemi Banana'의 첫 정규 음반 <Delta Integrale>의 발매를 기념하는 전시다. 전시에서는 앨범을 위해 리믹스한 곡과 감각적 뮤직비디오, 라이브 영상, 소셜네트워크서비스에서 인기를 끌고 있는 영상을 감상할 수 있다.

일시 6월 17일(금)~7월 14일(목) 오전 11시~오후 6시(※월요일 휴관) | **장소** 아마도예술공간 | **관람료** 무료 | **문의** 02-790-1178

서울예술인희망캠페인

연극 <달수랑 정직이랑 바다아이>

혈액을 거래하는 전당포에 소녀, 흡혈 인간, 살인을 저지른 안드로이드가 찾아왔다. 기발한 상상을 통해 우리가 사는 사회의 부조리를 풍자하고 비주류에 대한 관심을 환기한다.

일시 6월 29일(수)~7월 10일(일) 평일 오후 7시 30분, 주말 오후 3시(※화요일 휴관) | **장소** 선돌극장 | **관람료** 3만 원 | **문의** 010-9905-7305

서울예술인희망캠페인

공연 <나로 서울에서 모스크바까지 초록만들기>

록 밴드 '나로틱Narotic'은 지구온난화와 환경오염의 경각심을 일깨우고, 플라스틱 감소 현황을 환기하기 위한 공연을 펼친다. 소리를 합성하는 신시사이저를 활용한 다채로운 음향과 시각·청각적 형태로 메시지를 전한다.

일시 7월 9일(토) 오후 6시 | **장소** 스트레인지프룻 | **관람료** 2만 5천 원 | **문의** 인스타그램 @nar0tic

서울예술인희망캠페인

연극 <달콤한 노래>

변호사 미리암, 음악 프로듀서 폴은 평범한 중산층으로 두 아이를 둔 부모이다. 육아로 지친 미리암은 우연히 만난 동창으로부터 일자리를 제안받고 보모를 들이기로 한다. 면접을 거쳐 고용한 루이즈는 부부에게 없어서는 안 될 존재가 된다. 그 후 두 아이가 살해됐다.

일시 7월 1일(금)~17일(일) 평일 오후 8시, 주말 오후 4시(※월요일 휴관) | **장소** 서강대학교 메리홀 소극장 | **관람료** 3만 5천 원 | **문의** 010-2069-7202

서울예술인희망캠페인

공연 <리수스 콰르텟 리사이틀>

'관객들에게 웃음과 더불어 연주로 즐거움을 주고 싶다'는 의미로 지은 이름, 리수스risus 콰르텟이 모차르트 현악 사중주 15번 D단조 K421, 베토벤 현악 사중주 9번, 리게티의 현악 사중주 1번을 연주한다.

일시 7월 14일(목) 오전 11시 30분 | **장소** 롯데콘서트홀 | **관람료** 3만 원 | **문의** 02-780-5054

서울예술인희망캠페인

연극 <추기경 김수환>

"너희와 모든 이를 위하여!" 김수환 추기경 탄생 100주년을 맞아 추기경의 삶의 여정을 극장에서 선보인다. 종교와 세대를 초월한 참된 삶의 길에 대해 현대인과 공감을 나눈다.

일시 7월 1일(금)~10일(일) 평일 오후 7시 30분, 주말 오후 4시(※월요일 휴관) | **장소** 서강대학교 메리홀 대극장 | **관람료** S석 3만 원, A석 1만 5천 원 | **문의** 02-3789-7702

서울예술인희망캠페인

공연 <2022 세실콘서트-프로젝트 온도>

'온도'는 음악으로 따뜻한 온기를 전하고자 하는 여성 성악가 윤지·이가경과 피아니스트 김지현으로 구성된 프로젝트팀이다. 아름다운 레퍼토리와 함께 해설로 관객과 소통하는 무대를 선보인다.

일시 7월 27일(수) 오후 7시 30분 | **장소** 세실아트홀 | **관람료** 일반 2만 원, 청소년 1만 원 | **문의** 02-543-6752

제1회 서울 생활예술 페스티벌

시민 × 예술가 프로젝트 참여자 모집

성악가 우주호의

같이 견뎌온 지난 날
함께 — 노래 부르면
꼭 올거야
기쁨의 ——— 날

모집기간

2022.
06.20.(월) - 07.08.(금) 17:00

모집대상

합창하고 싶은 누구나

※세부요강 공고문 참고

서울문화재단

함께 만들어갑니다 [문화+서울]

웹진 [문화+서울]

www.sfac.or.kr/magazine

좀 더 나은 [문화+서울]을 만들기 위해 독자 여러분의 의견을 기다립니다. 가장 좋았던 기사나 제안하고 싶은 것들, 어떤 의견이든 적어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의견을 주신 분들께 [문화+서울]을 1년 동안 보내드립니다.

온라인 독자 엽서 링크
url.kr/wgl4zd

온라인 독자 엽서

강상철 님(서울시 서대문구)

1. **[문화+서울]을 어디에서 접하셨나요?**

   시민청

2. **[문화+서울]에서 가장 흥미롭게 읽은 기사는 무엇인가요?**

   지하 미감 어드벤처에 소개한 '서울 지하철과 동물들' 기사가 흥미로웠습니다. 저는 평소 다양한 사물에 호기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전부터 지하철 타일 벽화도 눈여겨봤지요. 동물뿐만 아니라 타일 예술의 진수를 보여주는 작품이 많습니다. 독립문역도 볼만한 풍경이 펼쳐집니다. 앞으로 기대하면서 기다리겠습니다.

3. **[문화+서울]에서 다뤄주었으면 하는 내용이나 편집부에 하고 싶은 말씀을 적어주세요.**

   거의 3년 만에 [문화+서울]을 봅니다. 정든 친구를 만난 듯 반갑더군요. 세월이 흐른 만큼 [문화+서울]도 변했네요. 가장 크게 달라진 점은 종이 독자 엽서가 없어졌다는 사실입니다. 왠지 섭섭했습니다. 그래도 읽을거리는 여전히 풍성해 만족했습니다. 모두 건강하시고 계속해서 좋은 글 부탁합니다.

주요 배포처

국립국악원, 국립중앙도서관, 금천예술공장, 대학로예술극장, 두산아트센터, 문래예술공장, 북서울시립미술관, 블루스퀘어, 삼일로창고극장, 상명아트센터, 서교예술실험센터, 서서울예술교육센터, 서울거리예술창작센터, 서울남산국악당, 서울도서관, 서울무용센터, 서울문화재단(본관), 서울문화재단 대학로센터, 서울시립미술관, 서울시50플러스 남부/서부/중부 캠퍼스, 서울시 자치구 문화재단 및 문화원, 서울역사박물관, 서울연극센터, 서울예술교육센터, 시민청, 신당창작아케이드, 아르코미술관, 연희문학창작촌, 잠실창작스튜디오, 중랑아트갤러리, 청년예술청, KT&G 상상마당 등

[문화+서울]을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본지는 무가지로 발간되므로 별도의 구독 요청이 불가합니다. 주요 배포처에 방문하셔서 비치된 잡지를 무료로 가져가시면 됩니다.

편집 후기

많이 애독해주세요~~~ **이규승 서울문화재단 홍보IT팀장**
17개월 동안 문플과 함께한 전 담당자님의 앞날에 꽃길만 펼쳐져 있길...! 신대학로 시대도... 많관부...! **연재인 서울문화재단 홍보IT팀**
한 해의 절반에 절 받으세요. 상반기 안녕! 하반기 안녕~ **김영민 서울문화재단 홍보IT팀**
올해도 절반을 살아냈으니 다시 절반을 기꺼이 살아보렵니다. **전민정 객원 편집위원**
20대의 추억이 방울방울 맺혀 있는 대학로야, 다시 만나 반가워~ **장보영 객원 기자**
해가 쨍쨍한 7월에 대학로로 놀러가겠습니다. **장영수 객원 기자**

서울문화재단 대학로극장 쿼드 QUAD 개관 페스티벌

2022.7.21 THU
-8.28 SUN

7.21 THU
JUST BACH
몰토 콰르텟
MOLTO Quartet

7.22 FRI
Classic in QUAD
이명주 박종해 조진주
이재형 신경식 이호찬

7.23 SAT
A Dream in the Summer Night
MOON(혜원)

7.29 FRI-7.31 SUN
OiL
극단 풍경

8.4 THU
제ver.2 <타오르는 삶>
99아트컴퍼니

8.5 FRI
COMBINATION
프로젝트 클라우드 나인

8.6 SAT
생 날 몸뚱아리
앰비규어스댄스컴퍼니

8.11 THU
전통한류 '바람불다'
Silkroad Music Friends

8.12 FRI
Born by Gorgeousness
HAEPAARY

8.13 SAT
신노이의 新심방곡
신노이

8.19 FRI-8.21 SUN
풍편에 넌줄 들은 <아가멤논>
천하제일탈공작소

8.26 FRI-8.28 SUN
싸구려 인조인간의 노랫말2 (로봇야상곡)
권병준

서울문화재단 | QUAD 서울문화재단 대학로극장

티켓 전석 30,000원 ● 예매처 www.quad.or.kr 인터파크 클립서비스 YES24 티켓링크 ● 문의 1577-0369

댑댄스 프로젝트, 김재현·김현수 <잼잼놀이터>(서울 스테이지11) |
즉흥공연 | 2022

테마 토크
대학로에 부는 신바람

이슈 1
동화·그림책에 빠진 어른들

이슈 2
서울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 러닝캠프Learning Camp

문화인
바이올리니스트 조진주

7월의 서울문화매뉴얼

07
9 771739 774005
ISSN 1739-774X